



군민일치

일편단심

단결

금강산

5

주체112(2023)
루계 제405호 월간



표지: 새로 일떠선 화성거리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조국에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새 거리 화성거리가 보란듯이 일떠섰다.

수도 평양의 휘황한 래일을 비껴안고 해마다 선경거리들이 솟아나는 경이적인 현실은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리념이 안아온 전변이며 만년을 박차고 전진비약해가는 조국의 기개와 저력의 힘있는 실증으로 된다.

본사기자 리영철



2



24



32



40



50



64

2 ||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이상이 응축된 인민의 새 거리

6 || 민족최대의 명절로 경축

11 || 재중동포들 대양절을 뜻깊게 경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12 || 합작은 불가능한가?

일화

14 || 위민헌신의 나날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15 || 금도금공예 《대전광도》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으며

16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서 (3)

22 || 농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구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

23 ||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세우시어

24 || 대상설비생산을 다그친다

26 || 자연에너지개발로 덕을 본다

28 || 태양빛에너지제품들의 성능을 높여

29 ||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었다》

대담
30 || 적극화되는 자연에너지개발

32 || 치료일지를 통해 본 보건제도

34 || 태권도를 사랑합니다

36 || 뛰어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

38 || 무한히 성실하라

40 || 사진으로 본 평양의 봄

44 ||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밝혀내는 길에서

편지

47 || 보고싶은 동생에게

조국의 품에 안겨

48 || 바드민톤과 인연을 맺고

고향소식

50 || 아름다운 래일을 그려보며

54 ||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을 노린 일본반동들의 만고죄악의 역사는 절대로 부정할수 없다

우리 나라 역사에 존재한 국가들

56 || 후부여

57 || 조선의 단청 모루무늬

조선의 옛 화가들의 이야기를 펼치고

58 || 새로운 묘사수법의 탐구자 리영운

민족의 향기

60 || 작품의 품위를 높여주는 표구

력사인물

62 || 실학자이며 작가인 박지원

조선의 명산

64 || 묘향산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료윤경
T-23088004012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이상이 응축된 인민의 새 거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인민의 환희를 분출시키며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4월 16일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지휘부 성원들, 시공단위 일군들, 군민 건설자들, 평양시민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당의 령도밑에 훌륭히 완공된 새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펴게 될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은 강대한 우리의 힘이 무엇을 위해 더욱 강해져야 하고 우리의 사회주의리상이 어떤것이며 우리 국가, 우리 위업은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하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념비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의 준공은 온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혁명의 새 승리와 눈부시게 번영할 래일을 확신하는 굳은 마음을 심어 주고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웅대한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해줄것이라고 하면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지휘부





의 붉은 기발을 더 높이 추켜들고 2단계 건설의 완공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준공테프를 끊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만나주시고 단 두해사이에 2만여세대의 살림집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서 주력이 되고 기치가 되어 수도 평양에 변혁의 새 전기를 펼쳐나가는 군인건설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수도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과 국가가 최종대사항으로 추진하고있는 숙원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우리 당의 건설정책과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웅장하게 꾸려나갈 구상을 다시금 피력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군민건설자들이 로동당시대의 부흥과 발전의 새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보람찬 창조자, 개척자라는 긍지와 자부를 안고 수도뿐 아니라 지방건설에서도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감으로써 문명한 사회건설을 다그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이 바라는 일, 당의 결심이라면 무조건 빛나게 실천하는 강력한 건설대군이 있어 우리 당의 건설정책이 완벽하게 철저히 집행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온 나라 인민의 축복속에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하게 된 근로자들이 새 살림집들에서 자자손손 행복하며 화목하고 보람넘친 생활을 누려가기를 축원하시었다.

준공식에 이어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참가자들은 황홀한 불야경을 펼친 화성지구의 새 거리를 돌아보았다.

* * *



민족최대의 명절로 경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왼쪽)과 금수산태양궁전(오른쪽)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조국인민들의 가슴속에 더욱 강렬해지는것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그리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애의 전기간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교락을 같이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하기에 조국인민은 그이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1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은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당대에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선이 걸어갈 승리와 영광의 천만리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였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인민들은 태양의 빛발로 이 땅에 광명을 안아오시고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고 강대한 사회주의국가를 귀중한 애국유산으로 물려주신 절세위인의 혁명생애를 경건히 회억하였다.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전국의 원아들과 어린이들, 소학교학생들이 은정어린 선물을 받아안았다.

수도 평양으로부터 백두산아래 첫 동네, 조국의 한끝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방방곡곡에서 학용품과 당과류 등을 받아안은 아이들의 행복넘친 모습은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천만고생을 락으로, 긍지와 보람으로 여기는 어머니당의 모습으로 안겨와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였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해외동포단체들과 해외동포들이 보내어온 꽃바구니들의 일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1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를 돌아보는 근로자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11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진행

수도 평양과 지방에서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었다.

수도에서는 제8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이한 평양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평양대극장, 봉화예술극장, 동평양대극장을 비롯한 경축공연장소들은 사회주의조선의 부강번영과 더불어 영원불멸할 태양절을 빛내이려는 인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설레이었다.

공연무대들에는 우리 인민이 세대와 세기를 이어 심장으로 부르는 기념비적송가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실화와 합창 《태양절 봄명절》, 남성독창과 합창 《잊지 못할 우리 수령님》, 합창과 무용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 등에서 출연자들은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만경대의 봄과 더불어 우리 인민이 받아안은 수령복과 천만년 빛날 조선의 영광, 민족의 대행운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출연자들은 절세위인들께서 인민이라는 대지 위에 씨앗을 뿌리고 한평생 가꾸어주신 우리식 사회주의화원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려가는 근로자들의 기쁨을 펼쳐보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1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김일성광장에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무도회가 개선문광장에서 진행되었다.

향도의 당을 따라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

전을 이룩해나가는 력사적진군길에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이한 참가자들의 열정과 기쁨이 야회장소와 무도회장에 차넘치었다.

이밖에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웅변모임과 청년학생들의 덕성 발표모임, 중앙사진전람회와 중앙미술전시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1돐경축 중앙미술전시회,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제26차 태양절료리축전, 제8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을 비롯한 정치문화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1돐에 즈음하여
경축우표(묶음전지 1종, 개별우표 4종) 발행**



조선화 《주체철 완성을 위해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유화 《농촌선동원의 이야기도 들어주시며》를 형상한 우표들이 있는 묶음전지는 한평생 조국의 통일변명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멀고 험한 공장길, 농장길을 쉬임없이 걷고걸으신 아버지수령님의 애국헌신의 려정을 숭엄히 되새겨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외국의 국가수반과 정계의 고위인사, 당 및 정부대표단과 주체사상연구조직에서 삼가 올린 금은조각 《락타를 탄 군인》, 《자기주전자, 자기컵》, 《자기꽃병》, 《유리꽃병》을 형상한 개별우표들은 절세위인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와 신뢰의 정을 잘 보여주고있다.

* * *

국가우표발행국에서 발행한 묶음전지의 우부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1돐경축》, 《주체1(1912)-주체112(2023)》이라는 글발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1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재중동포들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1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중국에서 경축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회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산하조직 대표들, 심양주재 우리나라 총영사관 일군들, 동북3성에서 사업하고있는 우리 공민들이 경축행사들에 참가하였다.

또한 중국 길림성인민정부 외사관공실 주임, 길림시인민정부 부시장, 길림시인민정부 외사관공실 주임, 길림육문중학교 교장을 비롯한 중국사회단체 대표들과 인사들, 중국조선족기업가 협회를 비롯한 료녕성과 길림성의 각계층 재중동포단체 대표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재중동포단체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이 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1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보고대회가 진행되었다.

최은복의장은 보고에서 아버지수령님의 고귀한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1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으려는 굳은 맹세를 다지시고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초기혁명활동을 벌리시였으며 15성상의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령도하시였다고 격찬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일떠설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곳곳이 계승되었으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귀중한 밑천들이 마련되고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압박채동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나 좌절을 모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강철의 담력, 파감한 결단력에 의해 우리 공화국의 앞길에는 끝없이 양양한 전도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그는 칭송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의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인민이 있는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길림시 인민대극원에서 경축공연이 진행되었으며

태양절경축연회도 있었다.

중국 심양시에 있는 총련합회 회의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삼가 드리는 축하편지를 채택하는 모임이 있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연변지구협회, 길림시지부, 장백현지부, 집안시지부, 할빈시지부, 단둥시지부에서도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을 진행하였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11돐에 즈음하여 재중동포단체, 동포들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중국 단둥시조선족련합회, 단둥시조선족총상회, 단둥시조선족련합회 부녀분회, 체육분회, 청년분회, 애심분회, 무역분회, 료식분회, 배구분회, 의료분회, 문예분회, 교육분회를 비롯한 분회들과 단둥시조선족련합회 회장 심청송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 전 부회장 홍영순가족인 주정강, 류홍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4월의 봄 친선에술축전기금리사회 상임리사 최동원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본사기자 임향심

합작은 불가능한가?

(전호에서 계속)

나는 또한 그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폭력 투쟁을 비난하는것은 공산주의리념자체를 반대 하기때문도 아니며 또 그 반대의 리념인 자본주의 사상을 옹호하기때문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조소하고 비판하는것은 일부 공산주의자들의 운동방식이나 투쟁방법이었지 공산주의리념 그자체는 아니었다. 그러나 방법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곧 리념에 대한 인식과 관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었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이 대중 운동을 지도하는데서 범한 좌경적오류는 유감스럽게도 새 사조를 동경하던 많은 사람들의 녀속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애정을 추방하는 가슴아픈 결과를 빚어냈다. 나는 량세봉사령과의 담화를 통해서도 만주지방에서 공산주의기성세대가 범한 과오의 후과가 얼마나 막대한가 하는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대중투쟁과정에 범한 좌경망동적과오를 시인하였다. 그러면서도 대중투쟁일반을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는 해독행위로 묘사하는 량세봉의 편견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사령님의 말씀과 같이 조선공산당출신의 지도인물들이 계급투쟁을 하는데서 지나친 탈선을 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들의 좌경망동바람에 사실은 우리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선사람이 일본놈의 앞잡이라는 인식까지 날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사령님, 농민이 지주를 반대해서 들고일어나는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령님도 농사를 많이 지어보아서 아시겠지만 가을에 가서 지주에게 차례지는것이 얼마인데 농민들에게 차

례지는것은 얼마나 됩니까. 죽도록 일해서 농사지은것은 다 빼앗기고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우니 농민들도 살아보겠다고 소작쟁의를 하는것인데 그것을 덮어놓고 열닷냥금으로 다 나쁘다고 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량사령은 내가 대중투쟁의 불가피성을 변론하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변론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였는지 아무 응대도 하지 않았다.

그날 독립군부대에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위한 환영회를 열었다. 독립군대원들속에는 류하와 흥경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파견한 《ㄷ.ㄷ》성원들과 정치공작원들에 의하여 공산주의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들이 많았다. 그런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환영회인것만큼 대단히 성대하고 열광적이였다. 그 환영회에는 통화현성에 살고있는 조선인들도 많이 참가하였다.

주인과 손님이 서로 차례를 엇바꾸어가면서 연설도 하고 노래도 불렀는데 환영회의 모든 공정에서 반일인민유격대와 독립군의 개성상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독립군대원들은 반일인민유격대원들의 소탈하고 겸손하고 락관적인 품성과 절제가 있고 기백이 있고 질서정연한 대오의 면모에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이 제일 부러워한것은 우리 대원들이 부르는 혁명가요와 38식보총이였다.

어떤 독립군대원들은 《저런 끝끝한 군대가 소문도 없이 갑자기 어디서 생겨났는가.》고 하면서 어리둥절해하였고 어떤 독립군대원들은 《당신네와의 합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 량사령과의 담판은 어떻게 되었는가?》고 묻기도 하였다.

량사령은 그날 성주가 데리고온 군대를 보자고 하면서 반일인민유격대를 방문하였다. 우리 대원들은 박수도 치고 거수경례도 붙이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환영을 잘하였다. 그런데 그만 량사령이 반공연설을 하는 바람에 모처럼 마련되었던 환영분위기는 적대적분위기로 바뀌어졌다.

《조선독립을 성사시키려면 우선 리적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공산당은 지금 리적행위를 하고있다. 공장에 가서는 자본가와 로동자가 싸우게 하고 농촌에 가서는 지주와 농민들이 싸우게 하고 가정에서는 남녀평등이라 하여 안해와 남편이 싸우게 한다. 찍하면 수탈이요, 타도요 하면서 동족간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이 민족사이에도 불신의 벽을 쌓는다.》

우리 동무들은 모두 그의 연설을 듣고 분개하였다. 차광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량사령을 원망스럽게 쳐다보기만 하였다.

반공으로 일관된 량세봉의 연설에 대해서는 나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나는 그가 왜 그런 연설을 하는지 리해할수 없었다.

《사령님, 우리는 그런 리적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선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며 근로민중의 리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선을 독립하자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로력자대중이 중심이 되어 투쟁해야지 그저 옛날식으로 몇몇 렬사나 영웅호걸들의 힘만으로는 안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자 우리 동무들은 입을 모아 국민부를 공격하였다. 국민부가 왕청문에서 애국청년 여섯명을 리유없이 살해한것은 리적행위가 아닌가, 민족앞에 그런 대죄를 짓고서도 국민부집단은 감히 그 무슨 리적행위를 운운하

면서 우리를 구박할수 있는가고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댔다.

그러자 량사령은 노염을 타면서 우리들에게 욕을 막 퍼부었다.

그 노여움이 도수가 지나치고 레의에 어긋나는것이였기때문에 나도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가 갑자기 리성을 잃고 우리를 질책하는것이 어쩐지 이상하게 생각되였다. 우리의 몇마디의 말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것이나 아닌가, 아니면 합작을 달가와하지 않는 어떤 인물이 량사령에게 우리를 걸고 나쁜 말을 한것이나 아닌가, 어쨌든 그가 노여움을 타는데는 무슨 곡절이 있을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인내성있게 그를 설복하였다. 《선생님, 그렇게 노하실것까지야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건 좀더 지내봐야 알게 아닙니까.

상대를 호상 리해하기 위해서는 사령님부대와 우리 유격대가 자주 접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는 량사령도 별로 응대가 없었다.

나는 량사령의 반공자세가 요지부동이긴 하지만 꾸준히 설복하면 그를 돌려세울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한가닥의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숙소로 돌아왔다. 남을 믿지 않는것을 일종의 배타주의적표현이라고 할수 있다면 남을 믿는것은 최선의 인도주의라고 말할수 있다. 국토침탈의 비운을 당한 나라의 애국자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인도주의란 민족단합을 이룩하는것이며 단합된 민족의 역량으로 부모형제동포자매들을 해방하는것이라고 나는 간주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위민천신의 나날에

어린이스키주소에 짓는 사연

주체108(2019)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스키주로를 건설할 산골짜기를 가리키시며 산의 해발고는 얼마인가, 스키주로의 폭을 얼마로 잡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한 일군에게 스키장에 어린이들을 위한 주로가 없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주로를 건설하자고, 우리 나라에서야 어린이들이 왕이 아닌가고, 왕의 주로가 없어서야 되겠는가고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스키장에 주로를 3개 건설하게 되어있다는데 어린이용으로 주로를 하나 더 건설하여야 한다고, 스키장에 어린이용주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그 주로에서 어린이들이 썰매도 탈수 있도록 초수평주로로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리하여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스키장에 어린이스키주로가 생겨나게 되었다.

새집들이날 가져오신 성냥

주체101(2012)년 9월 어느날 평양의 어느한 로동자의 가정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동자부부의 새집들이를 축하해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생활의 구석구석을 친어버이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시면서 새집에 보금 자리를 편 그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시였다.

로동자부부는 자기 집을 찾아주신 그이께 우리 나라는 로동계급의 세상이고 평백성이 온갖 복락을 누리는 인민의 나라라는것을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싶다고 말씀올렸다.

진정에 넘친 로동자부부의 이야기를 웃음속에 들어주신 그이께서는 새집들이를 한 집에 갈 때에는 성냥을 가지고가는것이 우리 나라 풍습

이기때문에 오늘 성냥을 가지고왔다고 하시며 집주인에게 성냥을 넘겨주시였다.

로동자부부는 솟구치는 걱정을 누를 길이 없었다.

조선인민의 오랜 풍습을 잊지 않으시고 새집에 가지고오신 성냥, 그것은 온 나라 가정들에 만복이 넘쳐나기를 따듯이 축복해주신 아버지의 웅심깊은 사랑이였다.

없어진 표식

주체101(2012)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경종합식당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2층에 꾸러진 식사실을 돌아보시고 중앙홀로 나오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식사실과 홀사이의 맑은 통유리를 끼운 벽과 출입문으로 나뉘어있었는데 거기에는 흰종이로 만든 《×》표식이 붙어있었다.

그이께서는 그것을 가리키시면서 2층홀과 짜장집사이의 벽과 출입문에 맑은 통유리를 끼우고 흰띠로 곱하기표식을 해놓았는데 유리에 단순하게 그런 표식을 해놓지 말고 꽃무늬장식 같은것을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손님들이 알수 있게 해놓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표식을 붙여놓았던 일군들의 눈길은 유리벽에 멎어섰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유리벽에 모래분사기로 흰띠를 장식하든가 아니면 꽃무늬같은 장식을 하여 보기에 좋으면서 사람들이 홀과 짜장집사이에 막아놓은 유리벽을 인차 알아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들이 리용하는것이라면 모든것이 다 완벽해야 한다는 그의 깊은 뜻이 담겨진 말씀이였다.

* * *

금도금공예 《대전굉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드린 선물 주체102(2013)년 9월 9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서 (3)



조국해방전쟁 제3계단 판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쟁 제3계단의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교 전 전선에서의 반공격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신 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착용하시었던 옷과 모자, 장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사령부 지휘소에서 사용하시던 전화기와 사무용품들

원 반공에 있어서 우리 당의 전략적방침은 적의 공격을 결정적으로 좌절시키고 빠른 시 일내에 반공적으로 침여가 적들을 38 선 이 남으로 몰아내면서 끊임없는 소모점으로 적 의 퇴장을 소멸약화시키는 한편 전쟁의 종국 적승리를 병위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 는것입니다. 김 일 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과 제2계단을 승리로 이끄신데 대한 해설을 들은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전쟁 제3계단의 사적자료들이 전시되어있는 곳에 들어섰다.

우리의 눈앞에는 전쟁국면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구상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이 숨엄히 안겨왔다.

그이의 영상사진문헌을 우리르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체39(1950)년 10월하순에 이르러 조국해방전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통찰력으로 정세발전을 환히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9(1950)년 10월 최고사령부 작전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단계에로의 이행을 선포하시고 전쟁국면의 근본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전쟁 제3계단의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전쟁 제3계단의 전략적 방침은 적들의 공격을 결정적으로 좌절시키고 빠른 시일안에 반공격으로 넘어가 적들을 38°선 이남으로 몰아내면서 끊임없는 소모전으로 적의

력량을 소멸약화시키는 한편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었다.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새겨안으며 참관자들은 전시된 사진자료들을 돌아보았다.

그이께서 들리시었던 평안북도 유명리농가이며 최고사령부지휘소로 리용하시던 창성의 농가, 잘 꾸려진 집무실도 아니고 작전타도 없는 수수한 농촌집.

후더워지는 마음을 안고 다음벽면에 전시된 사적자료앞에 다가선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그이께서 최전선에 야전지휘소를 정하시고 싸우는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해설해주었다. 전쟁의 준엄한 시련앞에서 일부 신념이 부족한 사람들이 동요하고있을 때 조선인민은 꼭 승리한다고 하시며 혁명가요를 힘있게 부르신 그이이시였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그이께서 부르시었던 혁명가요 《적기가》의 구절구절을 되새겨보았다.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전쟁의 전환적국면을 기어이 안아오시려는 그이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는 싸우는 인민과 인민군용사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고 싸움터마다에서 자랑찬 승리를 안아왔음을 참관자들은 장진호반전투반경화를 보면서 깊이 새겨안았다.

장진호반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작전지휘를 하신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적들은 인민군군인들에 의해 무리로 녹아



발악하는 적들의 공세를 짓부시고있는 인민군전투원들



반공적성공을 38°선이남으로 확대하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의 투쟁자료를





적배후를 교란한 제2전선부대들의 투쟁자료들

싸우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참관자들은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군사적지략은 물론 담력과 배짱에 있어서도 제일이지였다는것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안을수 있었다.

이어 참관자들은 제2전선부대들의 투쟁을 이끌어주시는 그이의 사적자료가 전시되어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여기에서 참관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것은 그이께서 적후 제2전선부대 전투원들에게 돌려주신 사랑을 전하는 자료들이었다.

주체39(1950)년 11월 어느날 최현동지를 적후군단장으로 임명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창문밖의 눈덮

췌는가고, 후방물자는 있으나 전선형편이 복잡하여 보내지 못하였다고, 동무들이 이번에 적후에 들어갈 때 적후에서 싸우고있는 동무들의 겨울옷도 함께 가지고가는것이 좋겠다고, 군인들이 배를 굶지 않게 쌀과 고기도 넉넉히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와 같은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은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무비의 용맹을 날게 하는 힘의 원천이였다.

인민군군인들은 지상과 공중, 해안에서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고 련속 타격함으로써 만회할수 없는 심대한 정치군사적패배를 안기였다.

조국해방전쟁 제3계단작전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미제침략군은 38° 선이남으로 쫓겨가게 되였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나라의 운명을 위협하였던 준엄한 시련이 극복되고 전쟁의 전환적국면이 마련되었음을 참관자들은 깊이 새겨안았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공유일

났다. 호실에는 제24해안방어려단 제5대대 군인들이 장진호반일대에서 적집단을 포위소멸할 때 휘날리였던 공화국기발과 사용하던 전투기 록수첩이 전시되어있었다. 호실의 벽면에 게시된 신문기사 《장진호반은 그 위훈 길이 전하리》는 인민군군인들이 장진호반전투에서 발휘한 무비의 희생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전하고 있다.

다음벽면에 인민군지휘성원들과 함께 게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앞에서 걸음을 멈춘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체40(1951)년 3월 어느날 최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곳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축구경기가 진행되였다. 이 소식은 날개가

돋친듯 전 전선에 퍼져갔고 고향에 보내는 전사들의 편지를 통하여 방방곡곡에 전해졌으며



적후투쟁부대들의 야전생활모형



농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구축으로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는 《온 나라가 떨쳐나 농업생산에서 근본적변혁을 일으키자!》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올해 알곡생산목표점령으로 전체 인민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어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가까운 몇해어간에 나라의 농업을 안전하게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것이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기본목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는것이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점령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지배적고지라는데 대하여 밝히시면서 그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올해 조선로동당은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기 위하여 12개 중요고지를 점령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웠으며 그가운데서도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정하였다.

나라의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까운 앞날에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우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는 천하제일락원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하기에 조선로동당은 사회주

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이끌어가고있다.

오늘날 농업부문에서 승전포성을 울리는것으로부터 올해를 국가경제발전의 큰걸음을 내짚는해, 변혁의 해로 만들자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의도이다.

지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려는 전체 인민의 기세는 충천하다.

조국인민은 이상기후현상에 대비한 전반적인 관개체계의 완비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에 무엇보다 큰 힘을 넣고있다. 올해에 계획한 관개공사를 강력히 추진하며 5개년계획기간 나라의 관개체계가 완비되게 될것이다.

또한 기계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 새롭고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한 사업이 계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조국에서는 부침땅면적이 제한된 조건에서 간석지개간과 경지면적을 늘이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전개되고있으며 간석지농사에 필요한 종자와 로력, 기술수단들을 갖추는 사업을 예견성있게 내밀고있다.

농업부문과 기상수문국을 비롯한 과학연구단위들을 첨단기대화하여 나라의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를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도 박력있게 추진되고있다.

그런가 하면 전국의 비료생산기지들에서는 비료들을 영농공정에 앞세워 공급해주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에 발을 맞추어 농업근로자들은 알곡생산의 직접적담당자라는 자각을 안고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온 나라 농촌작업반, 분조들이 애국작업반, 애국분조가 되어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수확을 이룩하려고 헌신분투하고있다. 구석진 포전에 이르기까지 논밭에 거름을 충분히 내고있으며 과학농법을 틀어쥐고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속에서도 안전한 소출을 내기 위한 사업 등이 힘있게 전개되고있다.

전원회의에서 밝힌 농업생산지도원칙에 따라 각급 농업지도기관들에서는 전국적인 농업생산량을 늘이기 위해 농사지도에서 편파성을 극복하고 전반을 책임지는 균형성을 보장하는데 주목을 돌리며 모든 농장들에서 정보당수확고를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사업들이 전개되고있다.

농업부문에 대한 당적지도가 강화되고있으며 농촌당사업도 개선되고있다.

농촌혁명의 기치높이 농업생산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농촌을 문명하고 부유한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조국인민의 힘찬 투쟁은 날에날마다 더욱더 고조되고있다.

본사기자 강경수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세우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마중가고있는 오늘 조국인민의 가슴마다에는 건국의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의 정이 끓어오르고있다.

돌이켜보면 나라를 빼앗긴탓에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며 지지리 놀리우고 짓밟혀온 조선민족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나라를 찾으실 큰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장 20성상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여 민족재생의 봄을 안아오시였다.

항일전의 나날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신 그이께서는 해방후 이에 기초하여 건당, 건국, 건군의 3대로선을 제시하시고 전체 인민을 건국사업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그이의 탁월한 령도로 해방후 짧은 기간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1년후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되였다.

그이께서는 창건될 공화국의 법적기초로 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실시하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주체37(1948)년 2월상순 북조선인민회의의 제4차회의에서 이미 작성한 헌법초안을 전인민적토의에 붙이도록 하시였다.

전인민적토의사업은 주체37(1948)년 2월중순부터 두달 남짓한 기간에 걸쳐 북남조선 전지역에서 진행되였다. 헌법초안은 전체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나라의 국호와 국장, 국기와 국가를 제정할 때였다.

당시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나라의 이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는데 대하여 각방으로 시비질하였다. 그자들은 《국호가 너무 길다.》느니, 《외국에서는 나라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면서 국호를 인민공화국으로 하든가 아니면 《인민》이라는 말을 빼고 민

주주의공화국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이름이야 우리가 주인이 되어 인민의 요구에 맞게 지으면 되지 무엇때문에 남을 쳐다보겠는가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에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성격과 참다운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이 뚜렷이 반영되어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국호를 인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분렬된 우리 나라의 현실, 우리 혁명의 당면임무와 근본목적을 다같이 고려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전민족의 리익을 대표하는 전조선적인 통일정부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하여 주체37(1948)년 8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북남조선총선거가 진행되였다. 북남총선거의 승리에 기초하여 주체37(1948)년 9월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차회의가 소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조직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이것은 이 땅우에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워 조선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내세워주시려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끝없는 로고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존엄높은 인민으로 력사무대에 당당히 나서게 되였다.

본사기자 연옥

대상설비생산을

다그친다

지난해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대상설비들인 특대형고압압축기들을 비롯한 많은 압축기들과 대형송풍기 등을 생산보장하였다.

올해에도 기업소앞에는 인민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많은 중요대상설비들을 생산보장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르고 있다.

일군들은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살려 대상설비생산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에 의거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일정계획을 드림없이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잠재력이 총발동되고 대중의 열의가 양양되는 속에 대상설비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선군압축기직장에서는 합리적인 작업방법과 지구장비를

제작도입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여러가지 형태의 압축기들을 생산보장하고있다.

선군주철공장에서는 창의고안으로 내화물생산원가를 종전대비해 훨씬 줄이었고 중주과유도로들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었다. 이에 토대하여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은 능력이 다른 3기의 중주과유도로에서 동시용해, 협동주조를 원만히 진행함으로써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전력공업부문에 필요한 부분품소재를 성과적으로 부어냈다.

공장에서는 생산주기를 줄이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었다. 그 과정에 용해와 사락, 열처리 등 생산공정들에서 혁신적이고 대담한 창안과 작업방법들이 탐구, 도입되어 생산주기가 대폭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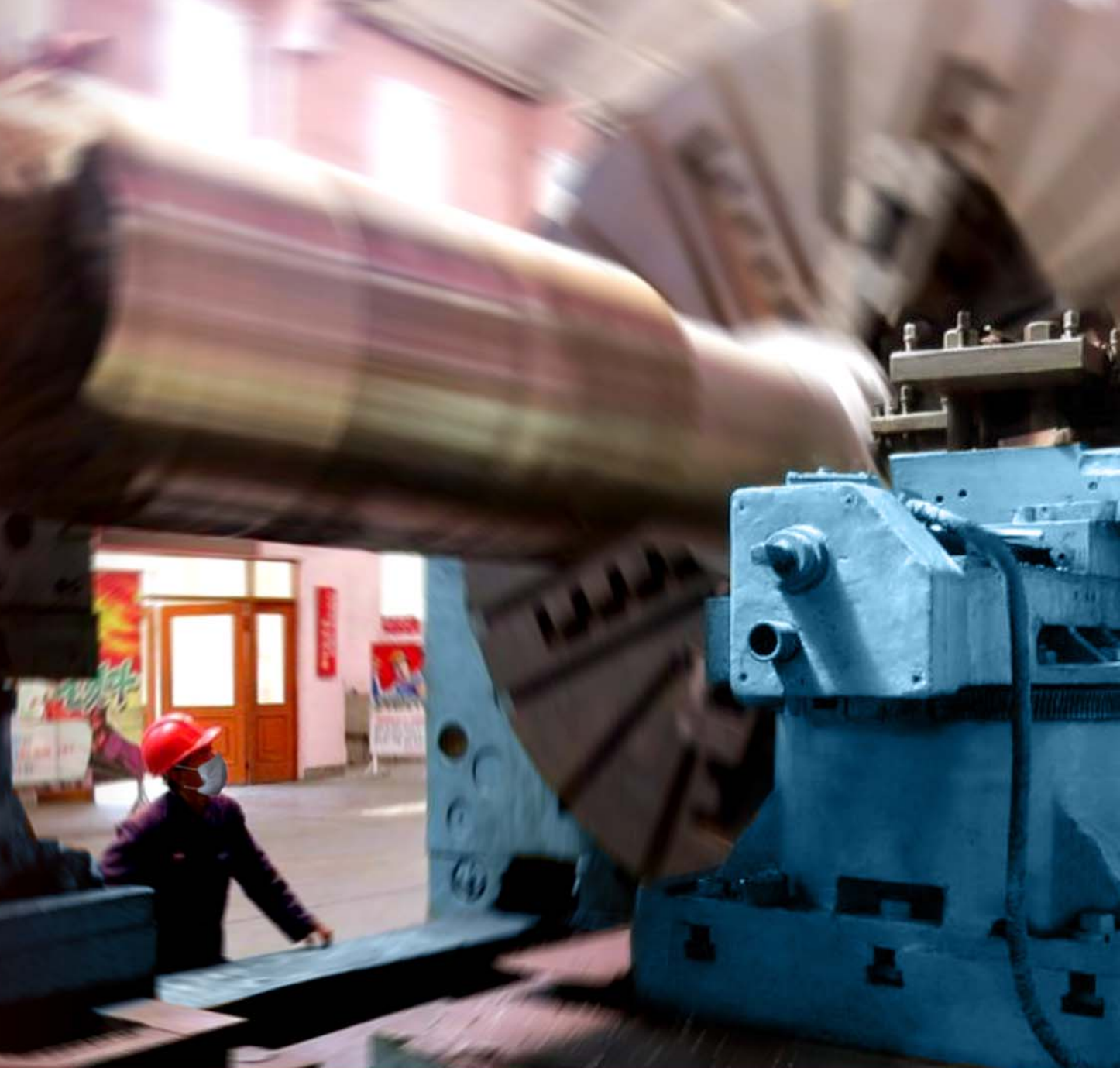
성과는 주강직장, 기계직장,

대형공작기계직장을 비롯한 다른 직장의 노동자들속에서도 일어나고있다.

특히 주강직장의 노동자들은 능력이 큰 전기로의 기술관리를 개선하고 선진적인 쇠물시편검사방법을 도입하여 쇠물의 질을 높이는 한편 조형, 건조, 주조공정간편계를 빈틈없이 맞물려 대상설비생산에 필요한 각종 부분품소재를 질적수준에서 생산보장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가공단위의 노동자들도 능률적인 지구장비들을 창안도입하고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전력공업부문에 보내줄 여러종에 수백점의 부분품가공을 앞당겨 끝냈다.

지금 기업소에서는 대상설비 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도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데 힘을 넣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조선중앙통신



자연에너지개발로 더 나은 세상

자연에너지는 그 자원이 무진장할뿐 아니라 리용에서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에너지이다.
조국에서는 나라의 풍부한 자연에너지 자원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그 성과를 적극 확대해나가고있다.

조국에서는 이미전부터 태양 빛과 풍력, 생물질과 조수력을 비롯한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그리고 목란광명기술사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는 태양에너지와 풍력, 지열, 생물질에너지개발리용을 위한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고 그것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도 갖추었다.

김일성종합대학 태양빛전지제작소에서는 종합적인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고 고효률태양빛전지판들과 계통병렬형역변환기, 독립형역변환기, 충전조종기 등 태양빛발전체계구축에 필요한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삼천리조명기구공장,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는 계통병렬형전력생산체제로 구성된 태양빛발전소들을 세워 자기 단위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고있다.

자기 지방의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각지에서 많은 자연에너지에 의한 발전능력이 조성되고있다.

평양시에만도 과학기술포럼, 평양시식료련합기업소, 대성산샘물공장, 류원신발공장을 비롯한 수십개 단위에서 계통병렬형 태양빛발전체계가 확립되고 수천개 단위에 독립형태양빛발전체계가 도입되어 시적으로 계획보다 더 많은 태양에너지에 의한 발전능력이 조성되었다.

풍력과 생물질에 의한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진척되는 과정에 미림색기와

공장 등 여러 단위에서 풍력발전기들을 설치하고 평양농기계작업소에서는 벼겨가스발동발전기를 제작리용하여 그 덕을 보고있다.

황해남도에서도 전력생산과 리용에서 자연에너지의 비중을 부단히 높이고있다. 도체신관리국, 도정보화관리국, 해주화학공장, 조옥희해주교원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는 건물들의 창문과 지붕에 태양빛전지판을 설치하여 생산과 경영활동, 과학교육사업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은천군에서는 풍력자원이 풍부한 군의 실정에 맞게 500여대의 풍력발전기로 수백kW의 발전능력을 조성하고 은률군에서도 300여대의 풍력발전기틀기관, 공장, 기업소와 가정들에 설치하여 실리를 얻고있으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에 이바지하고있다.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등에서도 여러가지 자연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여 전력생산범위와 능력을 부단히 확대해나가고있다.

사리원공업대학에서는 생활오수들을 처리하는데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50kW능력의 발동발전체계를 구축해놓고 강의와 실습에 리용하고있다.

평안북도송배전부에서는 수십대의 풍력발전기와 수천개의 태양빛전지판을 태양빛과 바람을 가장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는 구간에 이설하여 발전효율을 종전보다 높였다.

자연에너지를 리용한 에너지절약기술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과학기술포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에는 지열랭난방체계가 도입되어 많은 에너지를 절약하고있다. 그리고 평양화장품공장, 해방산호텔, 사동구역 장천남새농장마을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들과 살림집들마다에 태양열물가열기가 설치되어 덕을 보고있다.

최근년간 조국에서는 수력발전소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어 금야강군민발전소, 함흥청년1호발전소, 어랑천3호발전소 등이 완공되고 단천발전소건설이 본격화되고있다.

오래전부터 수력을 리용하는 계단식중소형발전소를 많이 건설한 자강도에서는 홍주청년4호발전소를 준공한데 이어 동신3호발전소와 고평3호발전소를 련이어 일떠세워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다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과학자들은 세계적으로 이룩된 이 분야의 앞선 과학기술성과들을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특히 자연에너지에 의한 분산형전력생산체계, 능력이 크고 효율이 높은 풍력발전기, 얇은층지열개발기술, 지열발전소, 바다물을 리용하는 열펌프, 고성능메탄발효촉진제 등 자연에너지의 개발리용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그리고 대규모 조수력발전소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현실은 하나를 투자하여 열, 백의 실리를 얻는것이 자연에너지개발이라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변진혁

태양빛에너르기제품들의 성능을 높여

김일성종합대학 태양빛전지 제작소에서 태양빛에너르기를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이미전에 이곳 제작소에서는 고성능화, 고품질화되고 기술안전성이 담보된 수명이 25년이상인 각종 용량의 태양빛전지판들과 변류기, 충전조종기 등의 태양빛에너르기리용제품들을 개발생산하였다. 이와 함께 그들은 이 제품들을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전 과정을 컴퓨터에 의하여 종합조종할수 있는 발전체제도 확립하였다.

그들은 이 체계를 제작소에서부터 받아들이었다.

수십kW의 발전능력을 조성한 결과 제작소에서는 자연에너르기를 동력으로 하여 제품생산과

경영활동을 원만히 할수 있게 되었다.

제작소의 연구사들은 이에 토대하여 보다 세분화된 가정 및 봉사시설용과 기관 및 공업용 태양빛에너르기발전체계를 세워나갔으며 시공으로부터 설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였다.

지금 이곳 제작소에서는 태양빛발전효률을 보다 높이는것과 함께 응용과 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이곳 연구집단의 노력으로 태양빛전지판들과 그에 따르는 계통병렬형역변환기와 독립형역변환기를 비롯한 역변환장치들과 충전조종기, 각종 분전함들이 보다 개선되어 발전효률은

비상히 높아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통합감시조종체계를 구축하여 국가망과 이동통신망을 련결시켜 리용자들이 실시간적인 태양빛발전체계에 의한 전력관리를 실현하고있다.

현재 류경안과종합병원, 삼지연시 베게봉스키장, 남양제염소 등 평양시와 각 도, 시, 군의 기관들과 가정세대들이 이 태양빛발전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그 리용범위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효률높은 태양빛발전체계를 전국에 널리 도입하기 위한 이곳 제작소연구사들과 종업원들의 노력은 계속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었다》

《정말 이렇게 큰 리득이 되는지 몰랐수다.》 이것은 태양빛발전체계를 받아들여 가정에서 쓰고 남은 전기를 국가전력망에 보내주고있는 평천구역 북성1동 90인민반 4층 2호에서 사는 리원하로인이 한 말이다.

그의 가정에서 태양빛발전체계를 받아들인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전의 일이다.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 들어온 그는 언제인가 옆집에서 태양빛전지판을 옥상에 설치하는것을 보게 되었다. 태양빛전지판을 설치해서 얼마만한 덕을 보겠는가 하고 하는 그에게 옆집 세대주는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한다.

《어떻게 항상 받고만 살겠습니까. 우리도 공민인데 나라에 조금이라도 리득을 주는 일을 하면 좋지요.》

그의 이 말에 로인은 생각이 많아졌다. 자기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머리가 수그리졌던것이다.

그후 그도 김일성종합대학 태양빛전지제작소의 방조를 받으며 지붕우에 10개의 태양빛전지판을 설치해놓았다. 계절에 따라 생산되는 전력량은 좀 차이나지만 매일 적지 않은 전기가 생산되었다.

생산된 전기는 조명과 난방, 가정용전기제품 사용에 리용하고도 한해에 2 000여kW가 남았다. 그는 이 전기를 국가전력망에 넣고있다.

그는 자기의 집은 소형발전소를 운영하는것과 같다고 하면서 전기를 마음대로 쓰니 좋아, 남은

전기를 국가전력망에 넣어 나라에 리득을 주니 좋다고 하였다.

인민반에서 여러 세대가 자연에너르기의 덕을 보니 많은 가정들이 따라나섰다. 9층 2호에 사는 신철의 가정은 태양열물가열기를 받아들였다. 태양열물가열기를 리용하니 사시장철 더운물을 사용하면서도 나라의 전기를 절약하니 좋다고 신철은 말하였다.

인민반장 윤정희는 《자연에너르기의 리용은 우리 인민반주민들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적극화 되는 자연에너르기개발

- 국가과학원 자연에너르기연구소 부소장 전철영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



국가과학원 자연에너르기연구소 부소장 전철영

기자: 지구의 생태환경을 개선하며 사람들의 생명활동에 유익한 조건을 마련함에 있어서 자연에너르기개발리용사업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수 있다.

부소장: 그렇다.

혹심하게 파괴되고있는 지구의 생태환경을 보호하자면 인류가 화석에너르기에 의한 의존도를 줄이고 태양빛, 지열, 풍력, 수력 등 자연에너르기들을 사회경제발전에 광범히 리용하여야 한다. 하기에 지금 세계적으로 자연에너르기원천을 탐구 리용하는것이 추세로, 흐름으로 되고있다.

기자: 우리 나라에는 자연

에너르기자원이 무진장하다고 본다.

부소장: 조국에는 산과 강하천이 많고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어 다양한 자연에너르기원천이 풍부하다.

우리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수력에 의한 전력생산량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이와 함께 조수력자원도 풍부하다. 조선서해안지역은 세계적으로도 조수차의 크기순위에서 앞선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온천과 다양한 식물자원이 많아 지열과 생물질에 의한 에너르기개발과 리용에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기자: 전국적범위에서 자연에너르기의 개발과 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이 과정에 좋은 경험들이 창조되고있다고 본다.

부소장: 최근년간 자연에너르기를 적극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서 눈에 띄이는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평양시에서는 해비침률이 높고 고층건물들이 많은 조건을 리용하여 태양빛발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있다. 현재 적지 않은 기관, 기업소와 가정세대들에서 태양빛전지판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생산과 경영활동, 생활에 효과있게 리용하고있다. 실례로 과학기술전당에서는 대규모태양빛발전체계를, 강남군량정사업소에서는 수백kW의 생물질가스발동발전체계를 확립하여 자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여유전력을 국가전력계통에 넣고있다.

황해북도에서도 태양빛과 함께 생물질에너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으며 평안북도 등 다른 지역들에서도 지대적특성에 맞게 자연에너르기를 개발리용하고있다.

기자: 자연에너르기를 개발하고 리용하는데서 국가과학원 자연에너르기연구소의 연구사들이 맡고있는 몫이 크다고 본다.

부소장: 자연에너르기를 적극 개발하고 리용하는데서 과학기술을 앞세우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구소에서는 지상 및 해상에서의 대형풍력발전, 태양열 및 심층지열리용, 조수력발전을 비롯한 자연에너르기의 리용률과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가고있다.

이 과정에 연구소에서는 조국의 섬이나 해안가의 그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리용할수 있는 효율높은 수평축, 수직축식풍력발전기들을 연구제작하였으며 대형풍력발전체계를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해결하였다.

현재 연구소가 이룩한 과학연구성과들은 조선서해안의 여러

섬들과 서해갑문사업소, 금산포켓갈가공공장 등 많은 지역과 단위들에 도입되어 은을 내고 있다.

지열을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진전을 이룩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전국적인 지열에너르기개발을 위한 탐사를 진행하고 능률높은 지열발전설비들과 장치들을 제작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여 지열에 의한 발전능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지하수를 리용한 지열난방체계를 연구완성하여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적지 않은 단위들에 도입하였다.

또한 조수력과 생물질에너르기를 개발리용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진척시키고있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 * *



치료일지를 통해 본 보건제도

조국의 곳곳에 있는 모든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류경안과종합병원에도 과별로 치료일지가 있다.

개원한지 7년밖에 안되지만 이 병원의 치료일지들은 퍼그나 두터워졌다.

망막과에서 본 치료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치료정형이 적혀 있었다.

이름 리천술, 나이 64살.

...

평양시 선교구역에서 살고 있는 이 로인은 주체109(2020)년 4월 어느날 갑자기 왼쪽눈이 거의나 보이지 않는데다가 오른쪽 눈까지 뿌옇게 보이여 심한 심리적불안속에 어쩔바를 몰라하

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본인은 이미전에 앓고있던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만 생각하였지만 눈에 심한 병이 온줄은 전혀 생각지 못하였다. 진료소담당의 사에 의해 환자는 즉시 류경안과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병원의 망막과에서는 구체적인 검사를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리었다. 환자는 망막박리, 증식성당뇨병성망막증으로서 병원적으로 이러한 상태의 환자를 완쾌시킨 레가 없었다.

만일 수술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심한 당뇨병까지 겹쳐있어 100% 성공할 가능성은 희

박하였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걱정은 참으로 컸다고 한다. 하지만 과에서는 환자의 병상태, 영양상태를 면밀히 관찰한데 기초하여 여러 차례의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탐구와 연구를 심화시켜 합리적인 수술방법을 찾아내기도 하였고 동물들의 눈을 리용한 모의시험도 여러번 반복하였다.

사실 이와 같은 병의 수술은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서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난도높은 수술이었고 비용도 엄청난것으로 알려져있다.

더없이 귀중한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한것은 고마운 우리 조국, 사회주의보건제도입니다.》라고 걱정을 터뜨리었다.

치료일지에는 평범한 이 로인이 입원기간 진행하였던 협의회내용이며 그의 몸으로 흘러들어간 각종 약물, 현대적인 설비에 의한 치료 등에 대한 자료들도 구체적으로 적혀있었다.

만일 그 모든 의료상해택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되겠는지.

김만석과장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약값은 물론 진단비와 수술비, 치료비 등 모든 항목이 돈으로 계산되지만 우리 의사들자체도 정확한 액수를 모르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인민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뜻을 받들어 환자들

을 정성껏 치료하여 완치시키기 위해 모든것을 다할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망막과뿐이 아니었다. 록내장과의 치료일지에는 얼마전 광명을 다시 찾은 평양시 대성구역에서 살고있는 한 로인의 치료내용이 상세히 적혀있었고 백내장과의 부피두툼한 치료일지를 펼쳤을 때에는 다시 앞을 보게 된 평안남도 대동군의 한 녀인의 감격의 목소리가 울려나오듯 싶었다. 글줄들은 비록 소박해도 그속에는 솔직하고 꾸밈없는 이야기가 있고 뜨거운 걱정이 있으며 심장의 고백이 있었다.

병원이 개원하여 지난7년간 이곳에서 무상으로 광명을 되찾은 사람들은 수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치료일지들에 기록되어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태권도를 사랑합니다

최근년간 진행된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부문)에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나어린 여자태권도선수들은 련이어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이러한 경기성파에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체육소조운영과 태권도지도교원 김영순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김영순은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에서의 선수생활기간 18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인민체육인이다.

전문가들은 그를 두고 태권도를 위해 태어난 녀성이라고 말하고있다.

태권도!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는 그의 생활에서 언제 한번 떠난 적이 없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태권도지도교원 김영순은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전적을 가지고있다.

자강도 희천시에서 나서자란 영순은 어릴 때부터 태권도에 상당한 취미를 가지고있었다.

하여 그는 어느한 태권도선수단에서 태권도를 수련받게 되었다.

그는 내려차기, 뛰며돌아엎차기를 비롯한 난도높은 동작들을 어렵지 않게 수행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국제경기에 참가할 선수선발경기가 진행되었는데 그는 무차별적인 여자개인맞서기경기에 나서게 되었다. 국내에서 명성이 자자한 선수들과 맞서게 되는 그의 마음은 조마조마하였다. 그는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였다. 드디어 그는 경기에서 많은 감독들과 선수들의 예상을 뒤집고 1등을 하였다.

일약 그는 특기를 가진 태권도선수로 알려지게 되었고 조선태권도위원회에서 선수생활을 하게 되었다.

주체81(1992)년 9월 그는 태권도전당에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여자단체틀 시범출연에 참가하였으며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게 되었다.

《지금도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의 발전에 그리도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며 태권도전당을 세워주시고 우리 선수들에게 박수도 보내주시며 치하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잊을수 없습니다. 그날 나는 정통무도발전에 온넛을 바칠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의 결심은 마음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 훈련의 나날 극한점도 이겨낼수 있게 하였다.

그는 이해에 진행된 제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하여 단체틀, 특기경기들과 여자개인맞서기경기(58kg급)에서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4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그로부터 5년후에 진행된 제1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단체틀, 단체맞서기, 단체특기, 여자개인맞서기경기(63kg급)에 참가하여 3개의 금메달을 받았다.

시상대에서 높이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발을 바라보며 그는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에 대한 가슴뿌듯한 자부심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그는 주체88(1999)년에 진행된 제1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또다시 우승하였다.

관중들은 내려차기와 360° 돌려차기, 뛰며돌아엎차기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를 두고 《땅크처럼 경기하는 선수》라고 평하였다.

이외에도 그는 여러 경기대회들에서 멋진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였다.

그는 주체89(2000)년부터 주체94(2005)년까지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 감독으로 활약하면서 수십개의 금메달을 안아오는데도 기여하였다.

태권도는 그에게 있어서 첫사랑이나 같았다. 명절날, 일요일 할것없이 그의 생활은 태권도와 함께 흘렀다.

가정을 이룬 후에도 태권도에 대한 그의 사랑은 변함없었다.

그런 사랑이 있어서인지 조선체육대학에서 배움의 나래를 펼친 뒤에도 그는 땀배인 도복을 입고 수련생들과 함께 훈련길에 있었다.

홍안의 시절은 다 지나가고 나이가 50살을 바라보고있지만 그는 오늘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학생들에게 민족의 뉘이 깃든 태권도를 배워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 평



김영순은 미래의 태권도선수권보유자들을 키워내기 위해 혼심을 바쳐가고있다. 주체108(2019)년 촬영

뛰어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

조국에서는 유치원시절에 벌써 신동으로 불리우며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재간둥이들이 많이 배출되고있다. 아래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소개한다.



한가영

우수상을 받은 꼬마미술가

지난해 7월 중국 료녕성 대련시에서는 《상봉, 겨울의 꿈, 미래》의 주제로 제8차 아시아어린이그림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전시회에는 조선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17개 나라와 지역에서 보내온 200여점의 작품들이 출품되었으며 우수한 작품들에 해당하는 상장이 수여되었다.

전시회에서는 중구역 외성유치원의 한가영어린이가 그린 크레용화 《눈오는 날》에 우수상을 수여하였다.

작품은 한가죽이 스키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담고있었는데 어찌나 생동하게 그리였는지 보는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내었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가 그렸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묘사가 잘되었고 형상수법 또한 독특한것으로 평가되었다.

가영이가 처음 그림을 그린것은 4살때였다. 한번은 어머니와 함께 공원에서 산보를 하고 집에 돌아온 가영이가 자그마한 손에 색연필을 쥐고 종이에 무엇인가 부지런히 그리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그것을 보며 딸애가 그저 장난을 하는



한가영이 제8차 아시아어린이그림전시회에서 받은 상장

것으로만 여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후 딸애가 내미는 그림을 보고서야 그것이 장난이 아님을 알수 있었다. 글썄 딸이 공원에서 본 꽃과 나비, 새들을 그렸는데 크기와 비례, 특징 등이 믿기 어려울만치 정확하였다.

가영의 남다른 소질은 그후 유치원교육을 통하여 더욱 계발되었다.

교양원의 말에 의하면 가영은 사물에 대한 표상과 함께 색상도 매우 섬세하고 부드럽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같은 주제도 독특하게 표현할 줄 아는 개성이 뚜렷하다고 한다.

하기에 가영이 그린 그림들은 주제111(2022)년에 열린 전국소묘축전에서 입상증과 메달을 수여받게 되었으며 제8차 아시아어린이그림전시회에서는 우수상을 받게 되었다.

6살 난 민요독창가수

중구역 외성유치원의 6살 난 리예정어린이는 사람들로부터 《꼬마민요독창가수》로 불리우고 있다.

그는 지난해 진행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과 전국아동음악방송예술클럽에서 민요를 잘 불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천성적인 음악적감각과 뛰어난 집중력을 지닌 예정은 3살때 벌써 한번 들은 노래를 완전히 기



리에정

역하였으며 음정도 매우 정확하였다고 한다.

이런 특이한 천성은 그후 예정이가 사람들의 절찬을 받는 꼬마민요독창가수로 성장할수 있도록 하는데서 기초로 되었다.

실지로 예정이는 민요를 배우기 시작하여 몇달만에 《어린이민요독창곡집》에 있는 모든 노래를 다 기억하였으며 매 노래의 음정에 맞추어 소리를 정확히 낼수 있게 되었다.

얼마후에는 1년전에 먼저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도 힘들어하는 높은 수준의 민요도 손색없이 부르게 되었다.

현재 예정이가 부르는 여러 민요들은 TV와 방송에서 널리 방영, 소개되고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즐겨 감상하고있다.

촉망되는 꼬마음악가

모란봉구역 모란봉유치원의 선우담의는 여러가지 재능을 소유하고있다.

어린이가 숨씨있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것도 기록하지만 피아노를 치면서 작사, 작곡을 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찬사를 금치 못하게 한다.

담의의 성장과 깊은 인연을 맺고있는 김영미교양원은 《담의는 음감이 뛰어난 천성적인 소질을 가지고있다. 그는 3살때 13화음도 청음하는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하였다.

타고난 음악적재능을 가진 담의는 바이올린을 처음 잡을 때 연주자세가 좋고 음정을 정확히 표현하였으며 활도 편안하게 다루었다.

일반적으로 그 나이때의 어린이들은 배운 내

용을 자주 잊어먹는다. 하지만 담의는 배워주는 것을 하나도 놓치는것없이 모두 기억하였으며 박자와 리듬도 정확하였다. 남달리 음감이 빠른 담의는 어려운 바이올린연주기법들도 짧은 기간에 터득하였으며 4살때에는 전문가용으로 편곡된 바이올린독주곡들도 훌륭히 연주하였다.

형상력이 풍부하고 소리울림도 남다른 담의는 5살때 전국아동음악방송예술클럽에서 뛰어난 연주솜씨를 보여주어 관중들을 기쁘게 하였다.

남달리 기억력이 좋고 새것에 민감한 담의는 바이올린에만 그치지 않고 5살부터는 피아노도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 노래가 나오면 자기식대로 제법 편곡을 하였고 생활과 주위에서 듣고 느끼는것을 시련에 담아 노래하기도 하였다. 유치원과 물놀이장, 동물원 등에서 넘쳐나는 아이들의 웃음과 랑만을 동심이 풍기는 표현들로 엮은 그의 가사들은 작가들도 감탄할 정도라고 한다.

국립민족예술단 작곡가 백성일은 꼬마작가를 알게 된것이 정말 기쁘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가사도 잘 짓고 거기에 훌륭한 곡을 곧잘 붙이는 담의의 전도가 촉망된다고 하였다.

지난해 담의는 자기가 지은 노래들중 《바둑놀이 신나요》, 《내거야》 등 5편의 동요들을 플라 작품집으로 완성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선우담의

무한히 성실하라



김치영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 과학자로서 이 모든 부름을 지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얼마전 우리는 이 부름을 지닌 농업연구원 농업화학화연구소 연구사 김치영을 만났다. 리과대학을 졸업한 후 50여년 세월 탐구의 길을 걸어온 그의 뇌리에는 많은 일화가 새겨져있다. 40년전 겨울 어느날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한 실험실에서였다. 뜻하지 않은 폭발로 하여 몸에 시약이 침투되고 유리 조각이 박힌 김치영의 몸상태는 매우 위험했다. 의사들은 그의 건강을 두고 머리를 저었다.

그러나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 농업부문의 긴장한 농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택한 길에서 물러설수 없었다. 그는 련속반응의 매 단계마다 한순간만 실수하여도 위험과 실패를 초래하는 실험을 백수십차례나 거듭한 끝에 마침내 새로운 혼합살충제를 개발하였다. 그가 개발한 농약은 당시 세계적으로 일부 나라들에서 독점하고있던 농약보다 살충력이 3배나 더 크고 작물과 토양속에서 유효한 성분으로 분해되는 새로운 침투이행성농약으로서 국내는 물론 국제학술계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그는 이에 만족을 몰랐다. 그는 극미량살초제, 봉산아연미량원소혼합비료를 비롯한 많은 농약과 비료들을 련속 연구개발하였다. 그 나날 하나하나의 제품들이 불리한 기후와 토양조건에서도 실제적인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해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아 그가 걸은 길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는 자기의 전공분야가 아닌 연구사업에도 스스로 몸을 잡으었다. 수십년전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주변농장에서 연구사업을 하던 그는 기업소의 로동자들로부터 해탄로에서 나오는 가스를 모조리 잡아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듣게 되었다. 그는 그 해결을 위해 해탄로의 축열실과 평로안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었다. 그리고 아찔한 가스흡수탑에도 올랐다. 열번, 스무번... 실험에 실험을 거듭한 끝에 가스에서 분리한 화학물질과 새롭게 찾아낸 촉매를 리용하여 식물성장자극제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곧 여러 협동농장들에 적용되어 농작물과 과일생산의 소출을 보다 높이었다.

그는 자기의 발명품들에 대한 특허증서를 원하지 않았다. 자기가 이룩한 과학기술성과와 경험들이 과학자들과 후대들의 연구사업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수 있다면, 하여 과학의 지름길을 따라 나라의 경제가 하루빨리 비약할수 있다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싶었다. 그는 잠만 있으면 《실용농학》을 비롯한 과학기술도서들을 집필하였고 인민대학습당과 대학들에 나가 농업과학기술초빙강의에도 출연하였다.

고농도린세균비료의 공업적생산방법확립, 농약제품질분석체계수립의 과학화, 새형의 강냉이종자피복제와 벼모판종합영양제의 개발도입 등 지금까지 그가 받은 창의고안증서들과 발명증서, 과학기술성과등록증, 집필한 도서들을 쌓아놓으면 키를 넘을것이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농약부문의 권위자로 알려진 그는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높은 목표와 완강한 실천속에서 빛난다.》라고 말해준다. 농고보면 그의 목표와 실천은 애국, 이 말과 잇닿아있다. 이 말과 더불어 그는 한



새 농약개발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있는 김치영

생토록 자신을 이겨내며 탐구의 길을 걸어왔고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오늘도 이 길을 걷고있다. 그의 수기집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발이 있다. 《자기를 키워준 조국을 위해 무한히 성실하라!》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임철병

유모아

말을 잘 듣는 남편

옛날 어느한 마을에 부부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있었다. 하루는 남편이 김을 매려 갔다가 호미를 잊어버리고 집으로 왔다. 이를 두고 안해가 탁달질을 하자 남편은 큰소리로 《발 첫번째 이랑에 두고왔소.》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안해가 《그렇게 큰소리로 말하면 남들이 듣고 호미를 집어갈게 아니요.》 하고 역

증을 냈다. 안해가 하도 성가시게 보쳐 남편은 다시 밭으로 나갔으나 호미는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남들이 들을세라 안해에게 귀속말로 소곤소곤 말하였다. 《당신은 정말 앞을 잘 내다보누만. 호미가 진짜 없어졌어.》

* * *

사진으로 본 평양의 봄



보통강반의 구슬다락 경루동



봄의 향취넘치는 룡라도

사진으로 본
경양의

봄



봄을 맞은 수도시민들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밝혀내는 길에서



인류의 발생과 더불어 조선민족이 언제부터 이 땅에서 살아왔는가 하는것은 누구나 알고싶어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답을 주고 민족의 역사적뿌리를 하나하나 밝혀내며 그 의미를 더욱 풍부히 해가고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인류진화발전사연구실의 연구사들이다.

이곳 연구집단이 조선민족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것은 지금으로부터 47년전이다.

당시 대학의 자연박물관에 전시된 함경북도 화대군과 길주군에서 나온 신생대의 털코끼리화석과 그 선조인 꼭지이발코끼리화석은 학자들에게 많은 의문을 던져주고있었다.

털코끼리는 지금으로부터 수만년전시기 추운 지방에서 주로 식물을 먹고살던 짐승이다.

그때 대학에 찾아오시여 이 화석들을 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털코끼리가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털원숭이도 있었을것이라고,

그러면 인류가 더운 남쪽지방에서 생겨 북쪽지방으로 퍼졌다고 단정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털코끼리와 그 선조인 꼭지이발코끼리가 있었다는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인류진화발전사문제를 다시 검토하여볼 필요가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교시는 이곳 연구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많은 나라들의 력사학계에서는 사람이 더운 남쪽지방에서 생겨나 점차 추운 지방으로 퍼져나갔으며 조국에서와 같이 추운 지방에서는 사람이 생겨날수 없기때문에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있을수 없다고 단정하고있었다.

따라서 조국에 구석기시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학술상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유구성과 조선사람의 기원문제를 정확히 밝혀야 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연구집단은 이것을 해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이미 주체55(1966)년

부터 주체57(1968)년사이에 발굴고증된 당시 평양시 상원군에서 나온 구석기시대전기의 동굴유적인 검은모루유적을 다시 연구분석하는 한편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보고있던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험한것이 아니였다. 원시시대의 력사유적에 대한 연구는 다른 유적들을 발굴하는것보다 다방면적인 지식, 높은 의지와 인내력을 요구하였다. 특히 발굴과정에는 위험을 동반할 때도 있었다. 어떤 동굴안은 너무 좁아 작업조건이 어려웠고 무너질 위험성도 많았다.

그러나 연구집단은 동굴속에서 퇴적물을 파내고 유물들을 하나하나 들어내고 실측을 하였으며 지층들에 대한 촬영과 시료채취도 하였다. 찾아낸 유물들의 파괴와 부식을 막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발굴에 못지 않게 어려운것은 유적유물들에 대한 고증이였다.



평양시 강동군 립경로동자구에서 구석기시대의 동굴유적을 발굴하고 있는 연구사들 주체111(2022)년 촬영



그들은 유물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한편 국제적으로 이름있는 학술연구기관에 시료분석을 의뢰하여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결과를 얻어내기도 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연구집단은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구석기시대 전기의 동암동유적,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용암속에 묻혀있던 구석기시대중기의 《화대사람》, 황해북도 황주군 청파대동굴유적에서 구석기시대후기의 《황주사람》을 비롯한 많은 유물들을 찾아내어 발굴고증하게 되었다.

특히 동암동유적과 청파대동굴유적들에서 주먹도끼들을 많이 발굴됨으로써 조국에는 구석기시대의 오랜 유적 특하는 원시인들의 주먹도끼문화가 없었다고 하던 종전의 견해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보다는 이미 100만년전의 검은모루유적이 발굴된 상태에서 또 다시 거의 88~72만년전에 해당되는 동암동유적이, 30만년전

의 화대군 석성리유적에서 《화대사람》이 나오는데 이어 9만~1만 9 000년에 해당되는 청파대동굴유적에서 《황주사람》이 발굴됨으로써 조선민족은 대동강류역에서 련면히 살아왔으며 이 땅은 인류발상지의 하나임을 보다 풍부히 하게 되었다.

연구집단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연구사업을 보다 폭넓게 벌려 평양시 강동군에서만도 조국에서 처음으로 신석기시대의 무덤유적을 찾아내는데 이어 향목리와 림경로동자구에서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시대의 유적유물들을 발굴고증하였다. 그 과정에 그들은 가치있는 인류화석들과 유물들도 많이 찾아내게 되었다.

강동군 림경로동자구 자연동굴에서 나온 유물들은 지금으로부터 2만 3 000년전의것이라는것을 확증하였으며 여기에서 나온 인류화석인 《강동사람》은 구석기시대후기에 산 한개

체의 30대 여성이라는것이 해명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집단은 민족의 원시조 단군이 묻혀있는 평양시 강동일대가 인류문화의 려명기로부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여온 지역의 하나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집단은 인류진화발전사연구와 관련된 가치있는 문제들을 해명하여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국제학술잡지들에 연구결과들을 발표하였고 여러 나라들과의 학술교류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연구실은 공훈과학자 2명, 박사 6명을 배출한 관록있는 연구집단으로 공인을 받게 되었다.

오늘도 이곳 연구집단은 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지키고 빛내여가려는 의지를 안고 력사의 이끼를 파헤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인류진화발전사연구실의 연구사들은 고색질은 유적유물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있다.

남들이 무섭히 대하는 하나의 유물에서도 이끼덮인 래고의 력사를 파헤쳐 민족의 유구함을 밝혀가는 연구사업은 그들이 지닌 애국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부회장 방영선 앞

보고싶은 동생에게



보고싶은 동생 영선아!
그간 어떻게 지내고있느냐?
시아버지와 준정이아버지는 건강하신지.
물론 가정의 자랑인 준정도 잘 있겠지.
왜서인지 요즘에는 네가 꿈속에 보이며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구나.

너와 함께 아버지에게서 바이올린을 배우던 잊지 못할 날들과 내가 너와 셋째를 썰매에 태우고 밀어주던 나날들이 때없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곤 한단다.

그런데 마침 4년전 네가 조국방문했을 때 취재했던 《금수강산》편집부 기자를 만나고 보니 네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

그래서 네 사진을 보고 또 보며 이렇게 소식을 전한다.

우리 가족은 다 잘 있다.
얼마전부터 내가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함께 살고있다. 어머니가 오시니 집이 한결 더 따뜻해진것같다.

어머니도 늘 네 생각뿐이다. 식사를 하실 땐 영선이는 뭘 하고있는지, 준정과 준정이 아버지는 잘 있는지 하며 네 이야기를 자주 화제에 올리곤 한단다.

쭉뚝을 빚을 때도 영선이 네 몫을 늘 남겨 두곤 하신다.

곁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에게 더 원심을 쓰는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어머니들의 마음인것같다.

충우아버지도 어머니에게 얼마나 극성인지 모른다.

참, 네 아저씨인 충우아버지 소식이 궁금하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로부터 애국자라는 값높은 평가를 받아안은 충우아버지는 여전히 바쁘게 살고있다.

애국의 마음을 안고 나라의 재부를 늘리기 위해 늘 현지에 나가 살다싶이한다.

참, 네가 그렇게 고와하던 충우와 연우는 이제 21살, 19살이 되었고 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있다.

충우는 경제학부에서 앞선 순위를 양보하지 않고있고 연우도 외국어문학부에서 최우등생으로 영예게시판에 소개되었다.

충우는 현실체험을 한다면에서 요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고있다.

최근년간 평양시에는 해마다 1만세대의 살림집들이 일떠서고있는데 정말 불만하다.

수도만이 아니다.
농촌진흥의 새시대가 펼쳐져 어디 가나 새집들이풍경을 볼수 있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아마 네가 조국방문을 오게 되면 온몸으로 느낄수 있을것이다.

영선아!
며느리, 어머니역할을 하기 힘들겠지만 난 네가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기 바란다.

그가 누구이든 해외에서 살건, 조국에서 살건 애국의 마음을 바쳐갈 때 나라가 더 부강해진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소리, 저 소리 하다나니 두서없이 썼구나.
그럼 다시 만날 날을 그려보며 펜을 이만 놓겠다.

중구역 동성동 57인민반
언니 방영심으로부터

바드민턴과 인연을 맺고



조선바드민턴협회 서기장 김룡길

새벽안개속에 묻힌 평양의 거리는 고요하였다. 그 거리로 조용히 걸어가는 한 사나이가 있다. 그는 조선바드민턴협회 서기장 김룡길이다.

매일아침 아빠트현관문을 처음으로 열고 나서는 것이 이제는 습관처럼 되어버린 그다.

그가 이렇게 새벽출근길에 오르곤 하는데는 사연이 있다.

지난해 공화국선수권대회 바드민턴경기가 끝난 후 룡길은 밤늦도록 사무실에서 심판원들이 제출한 경기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체육단별, 선수별, 나이별로 분석해보니 지난 시기보다 선수들의 순발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순간 그는 자책감을 안게 되었다.

그때부터 룡길은 매일아침 첫 시간마다 체육단을 찾아 현지에서 바드민턴선수들의 아침훈련을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소득은 컸다.

그가 예견하였던대로 훈련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생각할수록 이런 문제를 제때에 대책하지 못한 자신을 타매하게 되었고 인생의 방향전환의 길에서 자기를 떠밀어준 아버지의 기대를 다름아닌 자기와 잇고있다는 번뇌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37년전 바드민턴과 인연을 맺고 인생의 방향전환을 하였다.

당시 김룡길은 신의주시과외청소년체육학교에서 룡상을 배우고있었다.

그는 흰칠한 키에 조약과 힘이 좋아 전도유망한 룡상3단뛰기선수로 지목되고있었다.

그는 국내에서 진행된 청소년급륙상경기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그의 경기모습을 지켜보며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는 사람들속에는 평양철도국체육단 바드민턴감독도 있었다. 그는 룡길에게서 바드민턴선수로서의 기질과 능력을 찾아보았다.

그 감독의 논리적인 주장은 룡길의 마음을 룡상종목에서 바드민턴종목으로 끌리게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다.

룡길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막일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었다. 그에게 꿈이 있다면 기타를 멋들어지게 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소박한 꿈을 일본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다. 조국의 품에 안길 때 그는 안해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꼭 기타를 손에 들려주겠노라 하였다. 하지만 아들은 음악이 아니라 체육에 소질이 더 있었다. 기타를 치다가도 학교마당을 몇바퀴 뛰고 들어오곤 하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끝내 손을 들고야말았다.

그래서 룡상을 시작하여 성과가 나기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다른 체육종목으로 전공을 바꾸겠다니 아버지의 놀라움은 컸다.

하지만 그는 아들 룡길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며 《사람의 천성은 불꽃과 같아 타고올 때



현지에서 감독사업을 방조하고있는 김룡길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했다. 사나이가 한번 뜻을 품었으면 누구 눈치볼게 있느냐. 너는 분명 자기의 뜻을 조국의 명예를 빛내이는 길에 두었겠으니 나도 그 길을 막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아버지의 이 말은 룡길의 가슴에 대못처럼 새겨졌다. 나라잃은 그 세월 일본땅에서 태어나 민족적설움과 울분을 안고 살면서 기타연주가가가 되고 싶었던 소원을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가 조국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 줄 아들이 아니라 조국의 명예를 빛내이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고있으니 룡길은 스스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었다.

이렇게 평양행렬차에 오른 그 순간부터 그는 바드민턴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몇해사이에 국가종합팀선수로 자란 그는 1990년대초 말레이시아와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아시아급, 세계급선수권대회들에서 선을 보이었다. 그는 여러 나라들에서의 공동훈련을 통해 자기의 실력을 부단히 높여나갔다.

나라에서는 그를 조선체육대에서 공부시켜 체육단의 감독으로 키워주었으며 그후에는 체육과학연구소 바드민턴연구소로 사업하도록 하였다.

나라의 바드민턴기술을 선진수준

에 올려세우기 위해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가는 나날 그는 여러가지 가치있는 소논문들을 발표하여 선수들의 훈련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는 여러 차례 높은 국가수훈을 받았으며 12년전부터는 조선바드민턴협회 서기장으로 사업하게 되었다.

흘러간 나날들을 돌이켜볼수록 그는 이제라도 분발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다듬게 되었다. 자기의 결점을 찾아 대책하는 데는 언제나 늦은 시작이란 없는 법이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정열로 모든 바드민턴선수들의 체질에 맞는 기초훈련 방법과 경기운영기술을 부단히 탐구하고 실천에 구현해나갔다.

그의 노력은 바드민턴감독, 선수들의 훈련열의를 북돋아주었으며 특히는 선수들의 이동에서의 급출발, 불의적인 조약속도 등을 훨씬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오늘도 그는 감독, 선수들속에 자기의 위치를 정하고 나라의 바드민턴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고심하고있다.

그에게는 아들딸 두 남매가 있는데 자식들도 전망성있는 바드민턴선수로 주목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안해와 함께 흘러간 나날들을 돌이켜보고있는 김룡길

아름다운 래일을 그려보며

얼마전 우리는 평양시 대성구역 려명동에 살고있는 엄옥순녀성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로씨야 깜차뜨까주에 살고있는 엄창길삼촌에게 려명거리에 새 보금자리를 잡은 소식을 잡지 《금수강산》을 통하여 전하였던 녀성이다.

그는 우리에게 삼촌을 만나보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년로한 삼촌인데다가 또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장기화되고보니 자꾸만 삼촌을 다시 보지 못할것같은 생각이 갈마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려명거리에 대해 삼촌이 잘 알수 있게 상세히 소개해주었으면 하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우리는 그의 부탁대로 대성구역에 위치하고있는 려명거리에 대한 취재길에 올랐다.

려명거리가 준공된지도 어느덧 6년세월, 우리는 수없이 이 거리를 오고갔지만 볼때마다 가슴은 새 거리에 들어선듯 설레이곤 하였다.

려명거리는 금수산태양궁전과 룡홍네거리사이의 넓은 부지를 포괄하고있는데 여기에는 고층, 초고층살림집들과 교육, 보건, 상업봉사망들이 규모있게 배치되어있다.

특이한것은 마치도 섬세한 조각가가 능란한 솜씨로 깎아세운듯한 두개의 대표적인 살림집건물이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며 거리의 문주인양 하늘을 향해 서로서로 키돋음을 하고있는것이다.

우리와 동행한 대성구역인민위원회 한 일군은 《려명거리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은 선편리성, 선미학성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되고 태양빛과 지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전기절약기술들



과 지붕 및 벽면녹화기술 등 최신건축기술들이 도입되어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녹색형거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려명거리는 자력자강의 힘에 떠받들려 솟아난 자랑찬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을 증명이나 하듯 태양빛 전지판들이 해빛을 받아 번쩍이고 지붕들에 갖가지 나무들과 꽃관목들이 뿌리를 내린 살림집들의 희한한 모습이 안겨들었다. 그런가 하면 동화속의 그림같은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들도 우뚝이 안겨왔다.

우리는 흥그러워지는 마음을 안고 아스라하니 솟구쳐오른 70층, 55층 살림집마당가로 다가갔다.

이 살림집들은 김일성종합대학교원, 연구사들의 보금자리였다.

우리는 고속승강기에 몸을

싣고 66층 3호에 들러보았다. 이 집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도이취어문학강좌 교원 리영수의 가정이 살고있었다.

그는 우리를 창가로 이끌었다. 려명거리의 웅장한 자태가 한눈에 안겨와 저도모르게 탄성을 터뜨리었다.

그러는 우리들에게 그는 이제 더 놀랄만한 전경화면을 보여주겠다면서 자기의 사진기를 꺼내들었다. 사진애호가인 그는 이 집에 이 사온 후 금수산태양궁전상공에 려명이 밝아오는 사진, 살림집들을 휘감은 안개가 발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사진들을 적지 않게 찍었다.

그의 집을 나서는 우리의 뇌리에는 지금으로부터 일곱해전 3월 려명거리건설선포소식이 전해지던 그날이 우뚝이 떠올랐다.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당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거리,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이 거리건설을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력사의 맹세를 다지신 룡남산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일떠세우는 거리의 이름을 《려명거리》로 명명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후에도 그이께서는 무려 천수백건의 형성안을 보아주시고 여러 차례 현지에서 건설을 지도하여주시여 오늘처럼 완벽한 거리가 솟아오르도록 하여주신것이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려명거리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에서 아름다운 불빛들이 흘러나왔다. 그 화려한 모습을 부지런히 사진기화면에 담은 우리는 이어 려명동 31인민반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그러면서 생각하였다.

태양이 있어 려명이 밝아오듯이 이 세상 제일로 인민을 사랑하시며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뜨거운 품속에서 행복의 려명이 밝아오고 보다 더 휘황한 래일이 동터오고있다고.

바로 이 려명거리에서 다름아닌 자기 조카가 살고있을 생각을 하며 재로씨야 엄창길동포도 기쁨의 웃음을 지을것이라고.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안철룡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을 노린 일본반동들의 만고죄악의 력사는 절대로 부정할수 없다

-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비망록 -

우리 인민의 천년속적인 일본의 죄악에 찬 력사속에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하여 감행한 고비런대나는 범죄의 행적도 무수히 적혀져있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민족교육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4. 24교육투쟁 75돐을 맞으며 동시 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일본반동들의 극악무도한 민족교육말살범죄를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전대미문의 국가적인 테로행위

일본당국은 패망후부터 오늘까지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을 국책으로 삼고 집요하고 악랄하게 추진하여왔다.

일제의 식민지우민화, 《황국신민화》정책으로 현해탄건너 일본땅에서 온갖 민족적멸시와 차별속에 살아온 재일동포들은 해방후 자녀들에게 우리말과 글을 배워주어 그들을 민족의 녀을 지닌 조선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피땀에 절은 품전을 모아 일본도처에 국어강습소들을 일떠세웠다. 그후 국어강습소는 점차 학교로 발전하여 1948년초 조선학교수는 무려 500여개, 학생수는 6만여명, 교원수는 1 300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날로 확대되는 재일조선학교의 존재는 조선전쟁준비에 미쳐

날뛰던 미일반동들에게 있어서 골치거리가 아닐수 없었다.

1948년 1월 6일 미륙군장관 로이얄은 《일본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방벽으로 만들겠다. 그러자면 반미세력을 철저히 제거해버려야 한다.》라고 웨치면서 그 예봉을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전면탄압에 돌리도록 하였다. 이자의 객적은 망발은 패망의 분풀이를 하지 못해 몸살을 앓고있던 군국주의광신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미국상전으로부터 가장 구미동하는 먹이감을 받아온 일본반동당국은 1948년 1월 24일 문부성 학교교육국장의 명의로 《조선인설립학교의 취급에 대하여》라는 지령을 각 도, 부, 현지사들에게 하달하였다.

조선인의 독자적인 학교설치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재일조선인자녀들은 반드시 일본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는 강도적인 요구가 담긴 《1. 24지령》은 일제가 식민지통치시기 우리 인민에게 동화교육을 강요하였던 악명높은 《조선교육령》의 갱신판이었다.

재일동포들이 황당무계한 《지령》을 당장 철회하며 재일조선인들의 교육을 조선사람들의 독자성에 맡길것을 요구하여 결연히 투쟁에 떨쳐나서자 일본반동들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민족교육을 요람기에 말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야만적인 폭거는 재일동포들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었으며 재일조선인운동사에 4. 24교육투쟁으로 기록된 대중적항거를 낳았다.

이에 질겁한 고베주둔 미집

령군은 4월 24일 23시 30분 미8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비상사태선언》을 공포하고 대대적인 검거선봉을 일으켰다.

미일반동들은 효고와 오사카, 오카야마 등지에서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 효고현본부위원장을 비롯한 3 076명의 애국적활동가들과 교원들, 동포들을 체포투옥하였으며 4월 25일에는 고베시에서 1 572명의 동포들을 체포련행하였다. 미일반동들은 4월 26일 5 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경찰무력을 내몰아 오사카항의집회에 참가한 재일동포들에게 물총을 쏘아대고 총탄까지 난사하였다.

이 류혈적이며 야만적인 탄압으로 수많은 동포들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6살 난 김태일소년은 흉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바로 이것이 패망후 일본당국이 감행한 재일조선인민족교육에 대한 첫 국가적인 테로행위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재일동포들의 민심이 더더욱 평양으로 쏠리게 되자 미일반동들은 1949년 9월 8일 《폭력단체》, 《점령정책위반》이라는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 조련을 강제해산시켰으며 10월에는 또다시 조선학교해산결정을 내리었다.

이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일본전역에서 조선학교들에 대한 강제해산이 강행되었으며 340여개에 달하는 재일조선학교가 폐쇄몰수되거나 비법화되었다.

재일조선인민족교육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테로행위는 조선전쟁시기에 더욱 살벌하게 감행되었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결성 이후 일본반동들은 불법무법의 《외국인학교법안》이라는것을 조작하여 총련민족교육을 공개, 합법적으로 말살해보려고 획책하였다.

《외국인학교법안》은 일본정부의 문부상이 재일조선학교의 관리운영권을 틀어쥐고 교육내용의 변경으로부터 교원임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권한을 장악함으로써 총련의 민족교육을 전면적으로 탄압말살하고 동포자녀들에게 동화교육을 강요하려는 파쑈악법이었다.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26조 2항에는 《교육은 인간의 개성을 충분히 발전시키며 인권과 기본자유를 더욱 존중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인민들과 인종들 그리고 종교집단사이의 호상 이해와 양해, 친선을 도모하며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제되어있다.

그러나 1965년 12월 일본수상 사토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독립하였다면 독립된 교육을 하여야 하되 그것은 그 나라에서 하여야 하며 여기는 일본이기때문에 일본에서 그것을 요구하여도 그렇게 할수 없다.》는 망발

을 늘어놓았다. 군국주의괴수의 이 후안무치한 꾀변에는 일제의 조선강점과 야만통치가 빚어낸 죄악의 력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재일조선인문제를 일반외국인문제속에 용해시키려는 일본당국의 비렬한 정치적속심이 그대로 깔려있었다.

일본반동들이 총련민족교육을 겨냥한 최대악법을 립법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발광하였는가 하는것은 1966년부터 1972년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외국인학교법안》성립을 기도하고 국회에 5번이나 상정시킨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의 강경한 립장과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격렬한 항의투쟁, 내외여론의 규탄에 부딪쳐 《외국인학교법안》은 상정될 때마다 폐안되었으며 일본반동정부의 조선학교폐쇄기도는 여지없이 파탄되었다.

반공화국, 반조선인감정이 골수까지 짙 들어찬 일본반동당국은 지난 수십년간 조선학교들에 대한 각종 규제와 탄압을 일삼으면서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책동에 집요하게 매여 달렸다.

력사적사실은 일본당국의 민족교육탄압책동은 조선민족을 동화시켜 저들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려는 정치적야망으로부터 출발한 국가적인 범죄행위였다는것을 명명백백히 립증해주고있다.

(다음호에 계속)

후 부 여

우리 나라 삼국시기에 존재한 중세봉건국가들가운데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와 함께 후부여도 있다.

후부여는 B.C. 2세기초에 고대부여를 계승하여 세워지고 A.D. 494년까지 존재하였다.

단군조선의 후국으로 있던 고대부여는 B.C. 219년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통치집단이 와해되어 무너졌지만 대부분의 령토와 주민들은 부여의 통치제도밑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고구려에 종속된 형태로 존재하였다.

이 기간에 고대부여왕실내의 세력들은 당시로서는 선진적이었던 고구려의 봉건적영향을 적극 받아들여 부여지역의 분열을 극복하고 지역내의 모든 세력을 하나의 국가에 결속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었다. 이와 함께 왕족가운데서 유능하고 신망이 있는 왕자를 국왕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를 재건하였으며 국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벌어나갔다. 그리하여 B.C. 2세기초에는 고구려의 종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나

라로 되었다.

새로 성립된 봉건부여의 국호도 전과 다름없이 부여였으나 이를 고대부여와 구별하기 위하여 후부여라고 하였다.

후부여는 처음에 수도를 농안에 정했다가 286년에 재건되면서 회덕으로, 그후에는 사평일대로 옮겼다.

후부여의 령역은 서쪽으로 서료하류역으로부터 대홍안령산줄기를 따라 눈강상류일대에 이르렀고 동쪽은 읍루의 동변 즉 오늘의 연해주해안지대에 이르렀다.

3세기말엽이후에 이르러 후부여는 외세의 침공과 지배층내부의 알뜰으로 하여 국력이 약화되면서 일부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 동부여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4세기중엽에는 다른 세력이 일부 지역을 떼내어 독립하였는데 나라이름을 북부여라고 하였다.

동쪽의 나라인 후부여의 과국적사태를 제때에 포착한 고구려는 군대를 후부여로 진출시켜 그 지역을 차지하고 통치체

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5세기중엽에는 북부여를 통합하였다.

5세기말에 와서 나라를 더는 보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자 동부여왕은 동쪽의 나라 고구려에 나라를 바치고 투항하였다.

후부여에서 주도적인 생산부문은 농업이었다.

농작물은 조, 수수, 기장, 보리, 콩 등이었고 여기에 삼과 같은 공예작물이 있었다.

목축업도 후부여경제의 주요부문을 이루고있었는데 말과 소, 돼지 등을 많이 길렀다. 그중에서도 후부여의 말은 유명하여 이웃나라들에도 소문나게 되었다.

후부여에서의 수공업은 높은 수준에 있었다. 특히 야금, 금속가공, 옥돌가공, 직조, 질그릇제조 등이 발전하였다.

옥돌가공품은 후부여의 특산물이었다.

후부여에서는 베천과 모직천, 여러가지 비단천의 생산이 높은 수준이었으며 광석과 옥돌을 채취하기 위한 채광업이 상당한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후부여에서의 농업과 목축업, 수공업 등의 발전은 국내상업과 대외무역발전을 촉진시키었다.

주되는 수출품은 말과 여러가지 고급모피류, 금, 옥돌 및 구슬이었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 황금석

조선의 단청

모루무늬

단청은 나무로 지은 건축물에 여러가지 문양과 색깔을 리용하여 아름답게 장식하는 조선건축장식미술의 한 종류이다. 조선의 단청은 전반적인 색동일과 다양한 무늬에서 우수한 건축장식미술유산이다.

모루무늬는 단청장식에서 가장 많이 그려지며 중심적자리를 차지하는 기본무늬이다.

조선말에서 모루는 끝, 구석이라는 뜻을 담고있다.

수평부재의 힘받이부분인 량끝을 모루부분이라고 하며 여기에 장식하는 무늬를 모루무늬라고 한다.

모루무늬는 부연, 서까래, 도리, 장어, 액방, 평판방, 들보 등 기본부재들을 비롯하여 여러 세부요소들에 적용된다.

무늬의 구성에 따라 단지모루, 룡화모루, 병모루, 장고모루, 태평화모루가 있으며 무늬의 소재에 따라 련화모루, 모란화모루, 주화모루 등 여러가지가 있다.



부벽루 모루무늬의 일부



황해남도 안악군에 있는 절간인 월정사 극락보전 모루무늬의 일부

새로운 묘사수법의 탐구자 리영운

16세기말 어느 따뜻한 봄날의 이른아침이었다.

환희로운 봄날과는 대조가 되게 아까부터 푸른 솔가지가 한아름이나 되게 우거진 나무밑

에 맥없이 앉아있는 로인의 얼굴에는 먹장구름이 무겁게 실려있었다.

아침산책을 하느라고 청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술술으로

나오던 젊은이는 근심이 한껏 어린 로인의 모습을 보며 그의 곁으로 조심히 다가갔다.

《로인님,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게 아니십니까?》

정이 폭 배인 목소리로 다정히 묻는 젊은이의 말에 머리를 들어 바라보던 로인은 다시금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푸푸 내쉬었다.

《로인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그때에야 로인은 불평 절반, 근심 절반이 가득 실린 목소리로 하소연을 터놓기 시작하였다.

《내겐 에미없이 금이야 옥이야 하며 애지중지 키워온 딸자식이 하나 있다네. 그 애가 이제는 다 자라 래일이면 당장 출가를 한다네.》

로인은 다시금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오르는 두눈을 습벽이며 맥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아! 그래서...)

젊은이는 준수하게 생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로인의 두손을 꼭 잡았다.

《로인님, 님의 따님이 출가를 한다는데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섭섭은 해도 기쁜 마음으로 떠나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로인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소매를 툭툭 털며 분연히 자리를 차고 일어서는것이였다.

《내가 딸애를 보내기 싫어서 그러는줄 아나? 남의 속은 알지도 못하면서...》

로인은 노여움이 한껏 어린 얼굴로 애꿎은 젊은이만 불평스럽게 쏘아보았다.

그러다가 제편에서 미안한지 다시금 느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고을에서 한다하는 화공에게 딸애잔치에 쓸 병풍을 부탁했는데 어디 그 사람이 짬을 내주어야지. 보름전부터 부탁했는데 어찌나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한달전부터 그러달라고 말기고간 사람들도 다 못그려주었다지 않나.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로인은 두어깨를 맥없이 푹 내리떨군채 마치도 두발에 무거운 추라도 매단듯이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예? 병풍이요?》

병풍이라는 말에 젊은이는 다급히 로인을 불러세웠다.

《로인님, 혹시 제가 그려드리면 안되겠소이까?》

젊은이의 말에 로인은 자기의 두귀를 의심하며 성급히 발길을 돌렸다.

《젊은이가?》

로인은 젊은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로인은 도무지 젊은이에게 믿음이가지 않는지 선자리에 서서 머리만 기웃거렸다.

그러나 젊은이의 두눈에는 자신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좋네. 그럼 밀쳐야 본전이라고 난 자넨 믿겠네. 그런데...》

로인은 뒤말을 채 잊지 못하며 젊은이의 얼굴만 뻔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속마음을 알았다는듯 젊은이는 빙그레 웃었다.

《로인님, 오늘 정오면 아마 마련이 있을것이오이다.》

젊은이가 하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로인은 대뜸 젊은이의 손을 덥석 부여잡으며 자기의 집으로 이끌었다.

집에 도착하기 바쁘게 로인은 젊은이앞에 정성껏 만든 명주천 병풍을 쪽 펼쳐놓았다.

젊은이는 병풍의 크기를 가늠하더니만 이윽고 숙련된 솜씨로 붓대를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푸른 숲이 우거지고 따뜻한 봄날의 경치속에 한쌍의 원앙새가 서로 짝을 찾아 우짖는 모습, 온갖 새 지저귀는 꽃핀 동산에서 화려한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는 한쌍의 아름다운 공작새, 꽃나무가지우에서 이리저리 날아에는 한쌍의 까치.

젊은이의 붓끝만을 주시하던 로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도 황홀하여 입만 벌리고있었다.

꽃이 위주로 되고 거기에 새들의 생활을 부차적으로 제시해

주던 당시의 화조화의 보편적인 형상수법과는 달리 새들의 생활을 주도적으로 화면중심에 설정하고 배경에 꽃과 나무들을 배치하는 보다 새로운 묘사형식의 특색있는 화법이였다.

바로 이 젊은이가 묘사수법들을 새롭게 탐구하여 조선화의 전통적인 표현형식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데 크게 기여한 리영운이였다.

리영운(1561년-1611년)은 형인 리경운, 조카인 리징과 함께 풍경화, 동물화, 화조화 등에서 독특한 경지를 이룩하였다.

리영운의 작품으로서는 현재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대》와 《못가의 해오라기》 그리고 화조병풍도인 《꽃과 원앙》, 《꽃과 공작》이 있다.

리영운이 그때 로인에게 그려준 그림이 바로 화조병풍도인 《꽃과 원앙》, 《꽃과 공작》인것이다.

이 그림들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작품들이다.

원앙새와 공작새를 구도적중심에 묘사한 화면은 간결하게 처리되어야 할 뒤부분이 정리되지 못하고 복잡한감은 있으나 화면이 밝고 선명하게 느껴져 친근하고 향토적인 맛을 안겨준다.

이처럼 리영운은 묘사수법들을 새롭게 탐구하여 조선화의 전통적인 표현형식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명석



《대》(99×41cm) 비단·먹



《해오라기》(103. 3×46. 7cm) 비단·채색

작품의 품위를 높여주는 표구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조들이 창조하고 발전시킨 민족회화-조선화를 즐겨 감상하시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번호에는 조선화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표구라는것은 문자 그대로 미술작품의 걸을 꾸민다는 말입니다. 지난날에는 책이나 서화첩을 꾸미는것을 표구라고 하였는데 주로 동양나라들에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표구는 조선화를 비롯한 회화작품들과 서예, 수예, 수인화 그리고 삽화작품들, 직판자료 등을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아름답게 꾸미는데 리용되고있습니다.

세기와 년대를 이어오는 오랜 력사적과정에 조선 민족은 일찍부터 고유한 민족회화인 조선화와 함께 표구라는 수단으로 조선화를 다양한 형태로 꾸미었습니다. 작품이 낡거나 오손되었을 때에는 수복하고 재생해서 원화보존을 위한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선화표구는 조선사람의 민족적미감과 정서, 시대적요구에 맞게 조선화의 걸모양을 아름답게 조형적으로 장식하는 예술창작의 한 부분이며 구체적으로는 우수한 전통적미술형식인 조선화작품 창작에 속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미술가들이 조선화를 아무리 잘 그렸어도 표구를 잘하지 못하면 완성된 조선화작품으로서의 품위를 보장할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조선화표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것은 지난해 어느날이었습니다.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에서 취재를 하던 우리는 관록있는 창작가의 한사람인 공훈예술가 리동건을 만났습니다.

그는 방금 그림을 완성한듯 그림에서 붓을 내리던 참이었습니다.

그의 곁에 서서 함께 그림을 감상하며 감탄을 터뜨리는 우리에게 그는 어줍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조선화를 창작하는 과정에 매번 느끼는바이지만 일단 표구가 들어갔을 때는 사상에술적으로나 기량적인 측면, 작품이 보여주려는 정서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표구를 하면 <내가 이만하면 괜찮게 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작품이 보다 완성되어보입니다. 사람이 옷을 어떻게 조화를 맞추어 입는가에 따라 그의 품위가 오르내리는것처럼 그림도 어떤 재질로 어떻게 단장하는가에 따라 작품의 예술적 품위와 가치가 오르내린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선화표구라는것은 조선사람에게 조선 옷을 해입히는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화표구가 어떻게 진행되고있는가를 직접 보면서 그에 대해 깊은 리해도 가지고싶어 표구실을 찾았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미술가들이 그린 조선화작품들이 여러건이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작품들이 표구공들의 손에서 어떻게 훌륭히 완성되겠는지 무척 기대되었습니다.

표구실 실장 리광민은 우리에게 조선화표구는 속틀제작과 초배로부터 테두리장식과 액틀을 메우는 공정까지가 다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습니다.

표구에 리용되는 도구로는 표구판과 풀판, 건조판, 표구자 등이 있으며 표구자재로는 종이, 천, 풀가루, 포수액, 썩음막이약 등이 리용된다고 하

였습니다.

표구형식들은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과 형상적특성, 크기 등에 의하여 규정되고 복종되고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조선화작품에서 그림과 표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3분화, 7분표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선화작품을 완성하는데서 미술가의 몫이 30%이고 표구공의 몫이 70%를 차지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조선화작품은 쉽게 구겨지거나 찢어지는 자기의 재료적특성으로 해서 반드시 표구를 하여야만 전시와 보존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화를 표구한다고 할 때 뒤면에 종이를 덧대는 배접과정과 앞면의 작품둘레를 색종이나 비단으로 장식해서 족자나 액틀, 병풍으로 꾸며주는 장식꾸밈과정으로 나누어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은근하고 고상한 무늬와 색깔을 기본으로 리용하여야 자기의 효과를 나타낼수 있고 배접에 리용되는 풀을 정확히 써야 그림의 터짐과 변색, 곰팡이가 생기는 등의 손상을 막고 작품의 수명을 담보할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조선화에서 표구가 작품에 반영된 주제사상적내용과 인식교양적기능을 높이고 예술적풍격을 돋구어주며 조선화의 미적가치를 더해 주는 중요한 사명을 수행한다는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포여러분, 앞으로 조선화와 같은 미술작품을 감상하실 때면 표구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조선화표구의 실용적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곳 표구공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알게 될것입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표구형식들의 일부



공예부각장식액자



산정형액자



병풍



색변형2단가로족자





실학자이며 작가인 박지원

박지원(1737년-1805년)은 우리 나라의 이름난 실학자이며 작가였다. 자는 중미이고 호는 연암이다.

그는 철학, 역사, 천문, 지리, 풍속제도,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실학파의 대표자로 이름을 날리었다.

량반집에서 출생한 박지원은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할아버지 술하에서 자라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글읽기와 함께 문학과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옛이야기를 듣는것을 즐겨하였으며 점차 자라면서 국내외의 많은 도서를 연구하여 여러 분야의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는 영농법에 관한 의견을 서술한 과학저서인 《과농소초》와

봉건국가체제내에서 토지제도를 조절할데 대하여 쓴 《한민명전의(토지소유제한론)》를 집필하였으며 그밖에 정치를 바로잡으려는 의도에서 일련의 개혁안도 내놓았다.

박지원은 당대의 이름난 실학자였던 홍대용과 함께 《천원지방설》을 반대하고 지구는 둥글고 부단히 돌고있다는 학설을 주장하였으며 세계의 시원을 물질적인것으로 보려는 소박한 유물론적견해를 가지고있었다.

박지원은 여러 종류의 문학작품들도 창작하였다.

그는 1754년에 처녀작 《광문전》을 썼으며 그후 《민옹전》, 《우상전》, 《예덕선생전》, 《량반전》, 《허생전》,

《범의 꾸중》 등 많은 소설들을 창작하였다.

그는 이러한 작품들에서 부패무능한 량반들과 당대의 불합리한 현실을 폭로하고 가난하고 무권리한 사람들을 동정하였다. 특히 그는 《량반전》에서 부귀와 공명만 바라면서 허송세월하는 봉건량반들의 부패한 생활을 통하여 량반들의 위선적인 《례의법절》과 그들의 약탈행위를 폭로하였다.

후세에 전하는 박지원의 문집인 《연암집》(전 6권)에는 《열하일기》, 《과농소초》와 같은 독자적인 체계의 저술외에도 여러가지 한문체형식의 산문작품들근 270편이 실려있다. 《열하일기》는 려행과정의 단순한 기록

이 아니라 묘사대상과 창작의도에 따라 《수레의 제도》와 같은 정론, 《일신수필》의 여러 장들과 같은 수필, 《허생전》, 《범의 꾸중》과 같은 소설, 《피서록》과 같은 종전의 시화 등 각이한 형태의 작품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대서사시적화폭의 장편렐행기이다.

박지원은 이름난 시인이기도 하였다.

그는 려행을 즐기여 전국각지의 명산을 두루 답사하면서 시를 썼는데 대표적으로는 장시 《해인사》와 《총석정에서 해돋이구경》, 7언률시 《농사집》, 7언절구 《새벽에 길가다가》가 있다.

유명한 실학자이며 소설가, 시인이었던 연암 박지원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다.

박지원은 15살에 유안처사 리보천의 딸과 혼약을 맺고 뒤이어 인차 결혼을 하였다.

리보천은 학자로서 널리 알려진 사람이였으나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일찍부터 고향에서 농사에만 힘썼다. 그런것으로 하여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연암의 가문에 마음이 끌려 혼약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혼약을 맺은 날 신랑 연암의 행동이 사람들의 의아함과 웃음을 자아냈다. 배우자를 마주앉혔는데도 그는 레식에 마음을 쓰는것이 아니라 장서에 그득히 꽂힌 책들에만 눈길을 주며 이상스케 노는것이였다.

《아니, 신랑이 책에 장가를 들러나보군. 하하...》

《신부보다 책에 더 마음이 끌렸군. 혹시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는게 아닐까?》

둘러앉았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다. 신랑의 행동거지를 유심히 지켜보던 리보천이 껄껄 웃으며 좌중을 둘러보고 말했다.

《보아하니 이름날 학자감이

분명할진대 세상에 둘도 없는 사위감일세. 저런 사위라면 딸을 열주고도 아깝지 않겠소. 허허...》

리보천의 말에 모두 머리를 끄덕이며 수긍을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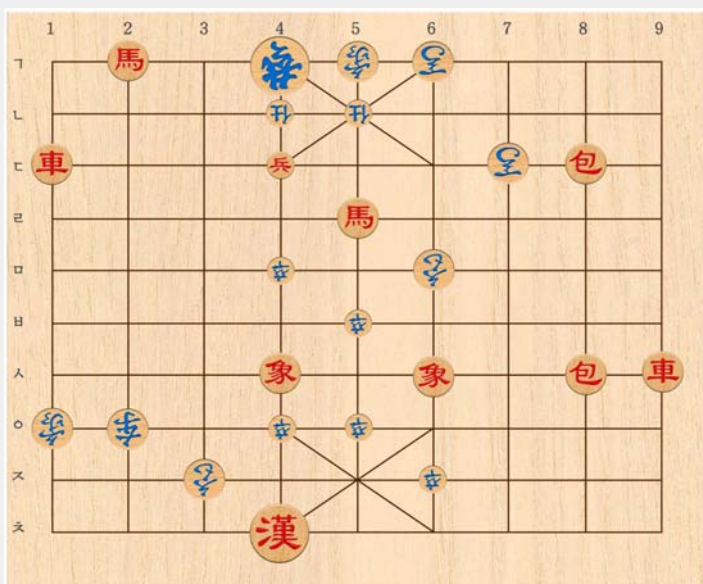
연암의 속마음을 읽은 리보천은 레장감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책들을 궤에 넣어 보내주었다. 《옛적부터 이르기를 남자는 의례히 다섯수레의 책을 가져야 한다고 했느니라.》라고 말한 리보천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글공부를 시작하지 않고있던 연암에게 스승까지 붙여주었다.

이런 덕분에 연암은 인차 학문에 눈이 트고 젊은 시절에 벌써 이름난 학자가 될수 있는 풍부한 지식과 밑천을 가지게 되었다.

이 시절 글공부는 연암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즐거움이었다고 한다.

* * *

장기수풀이 (5)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합니다.

장기격언

흥년에 배운 장기

특별한 수수빚은 없이 쪽먹기를 기본으로 하는 장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은 수가 낮음을 표현하는것으로서 보다 높은 수법을 소유할것을 요구하는 조언적인 말이다.

장기수풀이 (4)에 대한 답

ㄹ9말ㄹ7, ㄷ9상ㄷ7, ㄹ9포ㄹ6, ㄷ6사ㄷ5, ㄷ3말ㄷ4, ㄴ2말ㄷ4, ㄷ4차ㄴ4, ㄷ5사ㄴ5, ㄴ4차ㄴ5, ㄹ5차ㄴ5, ㄹ3상ㄹ6, ㄴ6궁ㄷ6, ㄹ6포ㄷ6, ㄷ5졸ㄷ6, ㄷ3포ㄷ6, 장훈

상식

바지와 저고리의 유래

《바지》, 《저고리》라는 낱말 자체는 조선봉건왕조초기에 처음 나온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세종실록》을 비롯한 조선봉건왕조시기 력사기록에는 《적고리》, 《과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인민들속에서 널리 통용된 저고리, 바지라는 입말을 한문으로 표기한것이다.

그 이전시기에는 바지를 《고》 또는 《가반》이라고 기록되였다. 저고리는 《상》, 《유》, 《위해》 등으로 불렸다. 《고》는 한문으로 바지라는 뜻이고 《가반》은 고유한 조선말이며 《상》, 《위해》는 저고리라는 한문표현

이다.

바지와 저고리는 민족문화가 창조되던 초기에 그 원형이 마련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수 있다.

조선민족은 신석기시대에 벌써 베천을 짜기 시작하였으며 독특한 민족옷을 만들어입었다.

고조선시기에는 비단을 비롯한 여러가지 천으로 바지와 저고리를 화려하게 만들어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후 바지와 저고리는 여러차례 변화발전되면서 계승되여오다가 18세기경에 이르러 오늘과 같은 형식으로 고착되였다.

민족옷이 바지와 저고리형태를 띠게 된것은 조국의 자연기후조건

과 관련된것으로 보고있다.

초기에 나온 옷은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앞섭을 겹쳐 여미고 허리를 끈으로 묶어입도록 되어있었으며 아래옷은 두다리를 각각 천으로 감싸고 실로 꿰맨 통이 좁은 바지형식으로 되어있을뿐 아니라 바지밑단을 터쳐놓지 않고 대님(발목을 졸라매는 끈)으로 묶어입도록 하였다.

이처럼 조선민족은 옷을 지어입기 시작한 초기부터 오늘과 같은 바지와 저고리형식의 독특한 민족의상을 창조하였다.

* * *

묘향산

- 만폭동 -



향로봉 남쪽비탈면에 이루어진 명승지인 만폭동은 크고 작은 수많은 폭포들이 련달아 있어 묘향산절경가운데서도 으뜸가는 곳이다.

이곳에는 만폭동의 서막을 알린다는 서곡폭포와 무릉폭포, 유선폭포, 비선폭포, 9층폭포 등 서로 다른 모양의 폭포들

과 팔담을 비롯한 담소들이 있다. 그리고 만폭대, 장수바위, 비선대, 단군대를 비롯한 전망이 좋은 기암들이 주위의 경치와 어울리어 하나의 절경을 이루고있다.

만폭동의 첫어구에 들어서면 제일먼저 보게 되는것이 서곡폭포이다.

만폭동골안의 폭포들이 울리는 《교향곡》의 첫곡을 알리는 것같다 하여 서곡폭포로 불리운다. 폭포의 양옆에는 멋있게 자란 푸른 소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있고 폭포수는 바위등을 따라 흐르다가 턱이 진 곳으로 떨어지고있다. 폭포의 밑에는 크지 않은 푸른 소가 있다.

이 폭포를 지나면 묘향산에서 장쾌하고 아름다운 폭포의 하나로 손꼽히는 무릉폭포가 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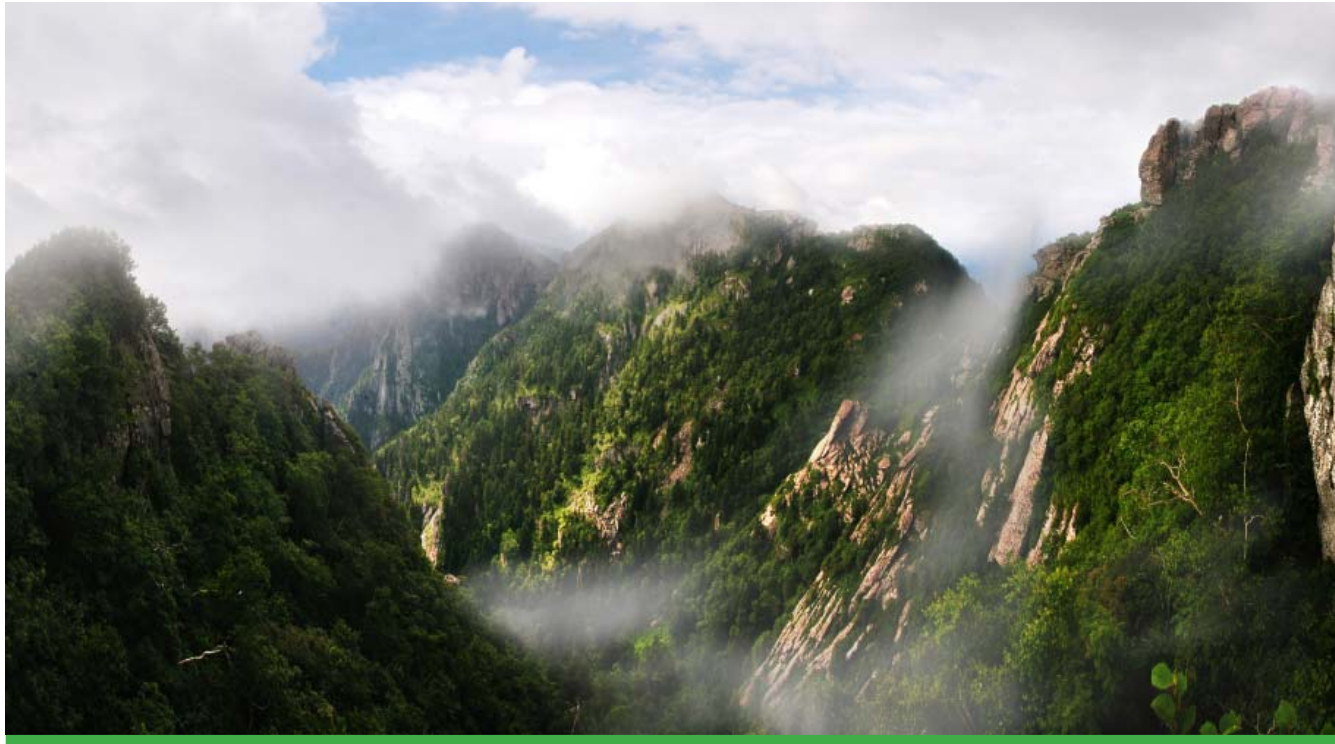
폭포에는 옛날 8형제나무군총각들이 일하다 실참이면 즐기던 곳이라는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총각들은 이 폭포의 경치가 하도 아름답다 하여 불행을

모르는 북송아꽃 만발한 무릉도원에 비기여 그 이름을 무릉폭포라고 지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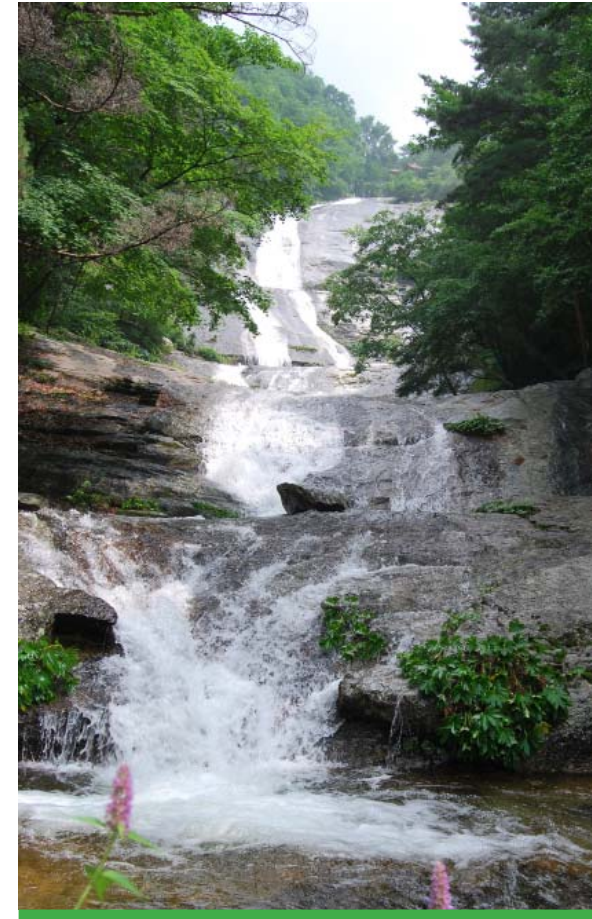
폭포수는 물매가 급한 말잔 등같은 암반을 타고넘어 수십m의 비탈진 벼랑으로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천지를 뒤흔드는듯싶다. 그런가 하면 바위턱을 넘어선 물줄기는 돌확에 부

딛쳐 커다란 반원을 그리면서 바위등을 약 50m정도 흘러내려 푸른 소에 떨어지는데 매우 볼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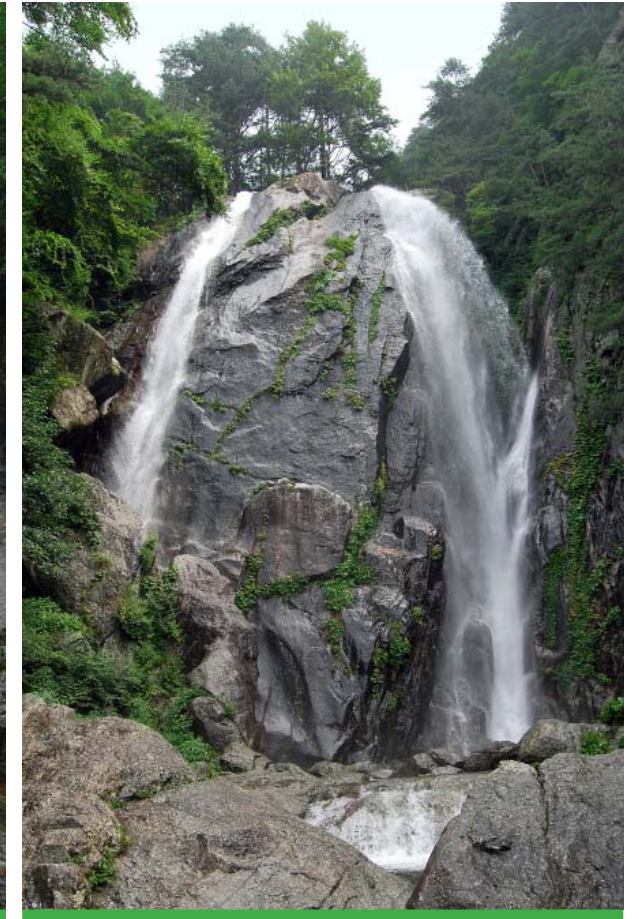
그런가 하면 은선폭포는 높지는 않지만 길이가 약 100m나 되고 그늘진 깊은 바위홈을 따라 조용히 흐르는 특이한 폭포이다.



천태봉의 여름



9층폭포



비선폭포



만폭대



만폭대에서 본 묘향산의 봉우리들

만폭동에는 먼 옛날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와 놀았다는 이야기로 하여 유명한 유선폭포, 만폭동에 내려와 놀던 선녀들이 폭포에 비긴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곤 하였다는 비선폭포가 있다.

특히 묘향산의 수많은 폭포들 가운데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전형적인 선폭포인 비선폭포는 그 모습이 기이하여 널리 알려졌다.

특징을 본다면 폭포수가 깎아지른 바위벼랑에서 두갈래로 떨어지는데 왼쪽물줄기는 바위를 에돌아내려오면서 수천수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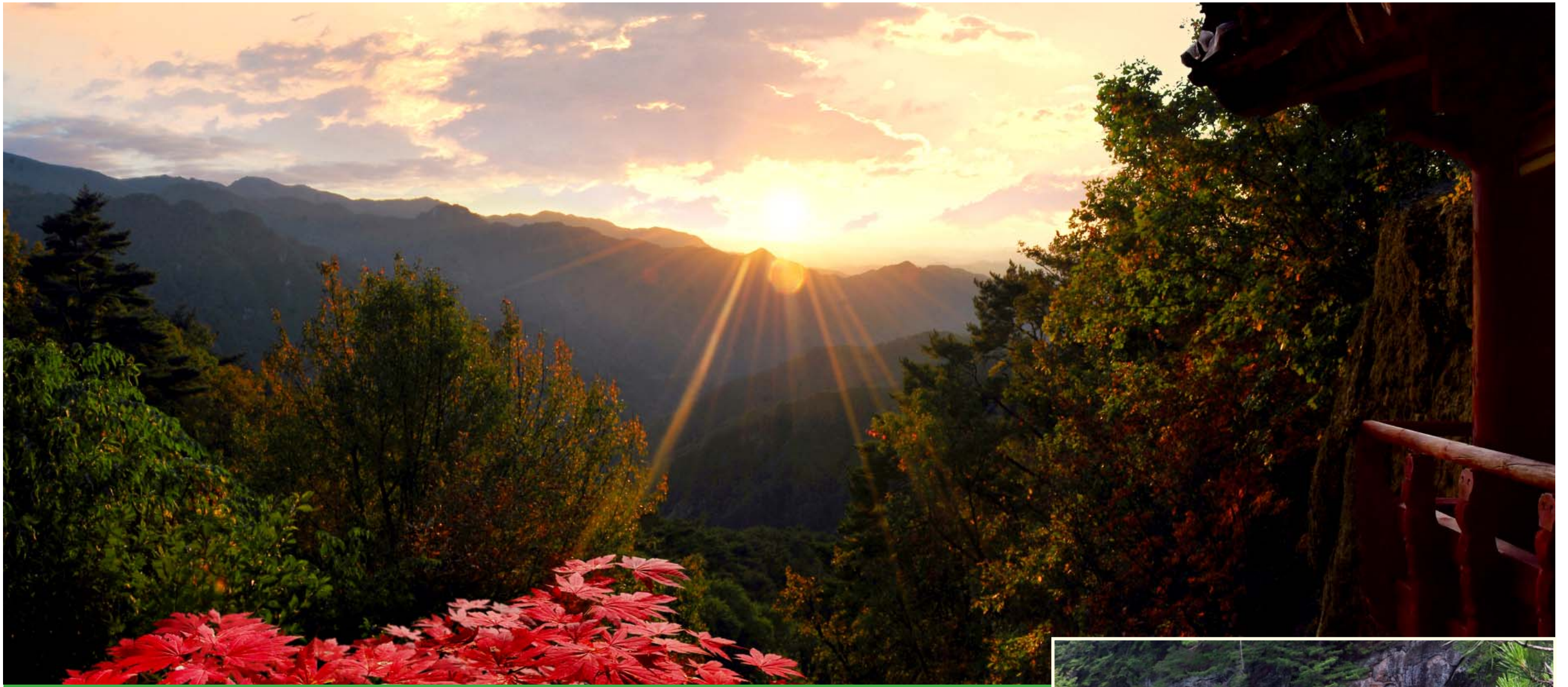
의 《은실》이 되어 푸른 소에 쏟아지고 오른쪽물줄기는 비탈진 바위면을 얼마쯤 내리다가 바위턱에 부딪쳐 뽀얀 물안개를 일으키면서 떨어지는 것이다. 비선폭포의 옆에는 전망이 좋은 비선대가, 왼쪽벼랑턱에는 합각지붕으로 된 비선정이 있다.

경사가 40° 이상 되는 대암반을 타고 250m의 구간을 아홉단을 이루며 떨어지는 9층폭포의 모습도 특색있다. 이처럼 규모가 큰 폭포는 아래서뿐 아니라 폭포우에 있는 정각 은덕루에서 내려보아도 그 경치가

만폭대는 상원암의 인호대처럼 전망이 좋은 기암으로서 이곳에 올라서면 만폭동의 경치가 한눈에 안겨온다.

만폭대에서 북서쪽하늘가를 보면 봉두타가, 남쪽으로는 락기봉, 선유봉, 왕모봉, 문필봉 등 묘향산의 여러 봉우리들을 볼수있다.

또한 만폭대밑으로는 유선폭포와 팔담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절경이다.

폭포를 지나 향로봉중턱에 오르면 예로부터 전망이 좋기로 이름난 기암인 단군대를 볼수 있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폭포들로 절경을 이루는 만폭동계곡, 묘향천골안과 남쪽으로 끝없이 이어진 련봉들이 한눈에 안겨온다.

단군대에는 단군이 여기에 올라 맞은편 탁기봉중턱에 서

있는 천주석을 과녁삼아 매일 활쏘기련습을 하였다는 전설이 담겨져있다. 단군대에서 산발을 타고 올라가느라면 묘향산에서 누운폭포로서 제일 웅장하고 큰 폭포의 하나인 은하폭포와 향로봉에 이르게 된다.

향로봉은 산봉우리에서 자라는 향나무들이 향기를 풍기고 산모양이 향로처럼 생겼다 하여 그렇게 불리운다.

봉우리에는 누운향나무, 누운측백나무, 누운잣나무들이 록색주단처럼 깔려있는가 하면 산등에는 들쭉나무와 만병초가 고산지대의 정취를 풍기며 자라고있다. 향로봉의 동쪽에는 천탑봉, 천태봉, 석가봉 등 산봉우리들이 즐지어 솟아있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송대혁

단군탁조(↑)와 단군사(→)

단군굴이 자리잡고있는 단군사에서 저녁노을에 붉게 타는 서쪽산발들을 바라보는 경치가 하도 절경이어서 묘향산8경의 하나인 단군탁조라고 일러왔다.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